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소중히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영예회장 · 노대환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5월 2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불기 2540년에도 어김없이 아기 태지로 부처님이 나투셨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1달여 동안 전국은 봉축무드에 싸였었다. 부처님을 닮고자 수많은 발원을 했으며 갖가지 다채로운 행사로 세상에 부처님오심을 일깨워 알렸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불교계 최대 명절이 끝난 이 회향의 싯점이 바로 시작이기 때문이다 크건 작건 다짐하고 쌓았던 서원과 공덕을 생활속에 돌리는 것이다. 남이 잘못한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잘한 대가조차도 남에게 돌리겠다는 자비심을 실천해야 하는 단계이다. 우리는 모든 행사를 회향식으로 끝맺어오지 않았던가. 회향정신을 다시 새겨본다. (편집자 주)

공덕을 회향하면…

모두 다 회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처음 예배하고 공경함으로 부터 중생의 뜻을 수순하기까지 그 모든 공덕을 온 누리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돌려,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병고가 없게 한다. 나쁜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착한 일은 모두 이루어지며, 온갖 나쁜 일의 문은 닫아버리고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은 활짝 열어 보인다. (화엄경)

선남자여, 어떤사람이든지 조그마한 보시를 하고라도 능히 증상심으로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는 가장 수승한 선심을 내어 얻는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면 그 이익은 다할 때가 없으리라. 만일 향 하나를 보시하더라도 마땅히 이런 뜻을 내어라. (범등경)

보살은 부처님이 설한 최상의 진리를 듣고 마음 속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중생에게 설법하여 회향한다. (화엄경)

보살에게는 네가지 선행(善行)이 있다. 첫째는 가르침을 아무리 들어도 실망내지 않음이요, 둘째는 바르게 관찰하고 사유함이요, 셋째는 가르침을 따라 능히 실천함이요, 넷째는 보리에 회향함이다. (화엄경)

만일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좋은 옷을 베풀어주면 그 옷을 베풀어준 인연으로써 그 태어나는 곳이 훌륭하리라. 또 사랑할만한 물건을 베풀면 천상에 태어나서 마음대로 하리라. 이제 내가 사는 이 궁전을 보라. 허공을 타고 자유로이 노닐며 몸은 마치 금덩이같아 백명의 천녀중에 뛰어났거니 이러한 복과 덕을 잘 살펴보라. 이것이 회향중의 제일이니라. (탄금경)

본래 그대들을 구제하고자 나라와 도성, 눈과 머리, 처자식과 손 발을 사람들에 수없이 보시하면서 이제 비로소 해탈을 얻어 위없는 대작법을 성취했거니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설법하여 널리 감로의 도를 열어주리라. (미륵삼부경)

"생명존중 참자유 세상을"

24일 부처님오신날 전국사암서 봉축법요식

'연등축제' 시민·불자 5만명 참여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지난 24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 전국 각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봉축위원회는 이날 조계사에서 석주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등 종단 지도자와 서돈각(진흥원 이사장) 이홍구(신한국당 대표) 박상규(국민회의 부총재) 서석재(조계사 명예신도회장) 의원 당선자등 정·재·학계대표, 신도등 3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법요식을 개최했다.

'마음을 청정하게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봉행된 법요식에서 월하 종정스님은 석주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허공이 내외가 없듯이 심법 또한 이와같다"며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진여의 이치를 통달해 화합과 평등의 세상을 이룩하자고 설했다.

이에앞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은 어떠한 사상 제도 권력에 의해서도 구속되거나 억압받아서는 안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위해 이땅에 오셨다"며 "각자 선자리에서 한걸음 나아가 동체대비행을 생활화하여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천하자"고 말했다.

전국의 각 사암도 이날 법요식을 갖고 육법공양과 관불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어 저녁에는 자역봉축위와 사암별로 인류평화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제등행렬을 펼쳤다.

한편 봉축위원회는 법요식에 앞서 19일 동대문운동장에서 보신각까지 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3 · 7면〉

〈이준엽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지난 24일 전국 각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불자들은 이날 사찰을 찾아 연등을 밝히고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며 모든이의 행복과 남북통일을 기원했다. 〈조계사=고영배기자〉





◇ '신리의 미소'를 머금은 국내 최고(最古)의 순금불상(사진 왼쪽)은 연화대좌 위의 입불로 머리위에 화염문양의 광배가 보인다. 높이 10.6㎝의 금동탑은 지붕돌에 풍경이 매달려 사실미를 더해주고 있다.

국내 最古 순금불상 공개

나원리 석탑서 발견…금동탑 4기도

지난 3월 경북 경주시 나원리 오층석탑(국보 제39호)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초기 금동제 사리함에서 국내 최고의 순금제 불상이 나왔다.

문화재 관리국은 지난 21일 금동사리함 내부에 대한 정밀 보존과학처리 결과 금동소탑 4점, 순금제 소형불상, 목제 소탑 1점, 사리 15과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다.

순금불상은 높이 4㎝, 무게 22g으로 가느다란 눈매에 미소를 머금고 연화대좌 위에 서 있는 입불로 수인(手印)이 정교하고 세련된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되고 있다.



◇정관스님



◇이홍구 대표



◇종호스님



◇유영구 청장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 20구좌

'미륵반가상' 보급 동참 각계에 확산

본사가 전개하고있는 전국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내기 운동에 이홍구신한국당 대표가 20구좌를 동참하는등 각계의 호응이 늘고 있다.

23일 현재 총 241구좌가 접수된 이 운동에는 정관스님(재단법인 불심홍법원 이사장)이 7구좌(금정중·해동중·학산여중·동래중·동호여상·해운대중·홍제중), 유영 강서구청장 3구좌(서울대미대·서울고·경기여고), 유석어린이회 2구좌 등 호응이 잇따르고 있다.

동참해주신 분

△지인 삼척 관음암 주지: 삼척여고(1구좌) △도훈 진도 쌍계사 주지: 인천여고 인하사대부고(2구좌) △종호 실천불교승가회 스님: 부산 덕문여고(1구좌) △이홍기 온천랜드 대표: 신기중(6구좌) △류재만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서울고(1구좌)

〈5월23일 현재 총 241구좌〉

어떻게 추진되나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누구나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 지정 가능(지역학교·출신모교·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어떻게 참여하나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다음주 휴간 81호 6월12일자로 발간

화보 : 연등축제 이모저모 7면
바조 · 김흥국 2002년 기약 15면
조계종 '불교문화 세미나' 13면
화순에 불교 실버타운 14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별지부록 타블로이드 4면 발행



사 설

사찰방화범은 누구인가

종교란 철두철미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초월자에 대한 특정종교의 배타적 헌신조차 결국은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은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공동체라는 휴머니즘적 문맥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공동체는 전체에 대한 개인의 협력과 양보, 다른 존재에 대한 겸양과 존중을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아니 강제한다. 이 원칙이 깨질 때 공동체는 이를 저지하고 교도하고 징벌할 의무와 책무를 진다.

종교 집단 또한 공동체의 일부인 이상 이같은 감시와 징벌, 권유와 설득에 앞장서야 한다. 외국의 경우, 나는 그들 외도(外道)의 종교적 공동체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상적 수준의 규범을 떠나지 않음을 알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교회의 모임이나 장례식의 집회, 가톨릭의 미사등에 참여하면서 나는 송광사 불교의 소에 못지 않은 장엄한 영혼의 울림을 경험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땅에는 다른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파괴와 훼손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묵인되며, 심지어 조장하는 광신의 작태가 만연하고 있는가. 삼성암, 본원정사 화계사 등 최근 강북구 일원 및 울산 성남 등 잇단 사찰방화사건을 지켜보며 경악과 함께 자괴심마저 솟구친다. 종교가 권력의 외피를 입고, 또 그 자체 권력으로 행사하며, 불건전한 집단의 특권의식을 조장하고 있지나 않은가. 대체 경찰은 무얼하고 있는가. 혹 집권 세력의 지배적 종교에 기대거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방화범들을 정신질환이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방면하고 있다고 들었다. 명백한 범죄행위를 행여 공권력이 종교의 이름 아래 보호한다면 지극히 반민주적이고 헌정질서파괴적인 작태이다. 권력은 종교를 넘어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종교보다 거룩한 힘임을 인지하라.

경악과 분노, 슬픔과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진다. 불교유산이 어찌 특정 종교의 자산만이랴. 최근의 비극적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특정 종교에 대한 광신자의 비정상적 혐오에서 저질러진 것이지만, 우리는 그 사태의 근본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외세의 심각한 도전을 읽는다. 전통유산은 불교를 포함하여 유교와 민속, 사먼과 도교를 무형적 코드로 하여 형성된 것들이다. 장승백이의 장승들이 불에 지져지고, 경주의 석불이 나치스의 붉은 하켄크로이쯔(그것을 도저히 십자가로 읽을 수 없다)로 환칠되는 이 기막힌 현실앞에 그저 망연할 수밖에 없다. 참담한 현실 앞에 역설적이게도 나자렛 예수의 그 연민의 울부짖음을 떠올린다. "주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옵니다." 불을 지르고 탱화를 찢은 손은 자신이 진정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을까. 불합리한 정열과 현실의 좌절이라는 정신의 어둠(無明) 속에서 초현실성에로의 도피가 파괴적 충동과 배타적 독선으로 이어졌다. 영웅주의는 실패한 인격, 좌절된 현실의 표출이다. 히틀러의 철십자와 석불의 붉은 가위표의 심리적 기제는 동일하다. 그래서 위험하기 이를데 없다.

종교는 배타적 독선의 교설을 버려야 한다. 종교다원주의와 타종교에 대한 관용은 지구촌 시대의 기초 덕목이다. 이해는 고사하고 공격이라도 멈추라. 최소한 물리적 힘을 통한 파괴적 작태는 제발 삼가라. 각 종교집단은 초월과 헌신의 이름으로 그같은 배타적 작태에 대한 합리화나 피난처를 제공하지 말라. 종교는 모름지기 전체의 가치에 헌신하는 휴머니즘의 고취이지, 개인의 좌절감이나 비현실성을 추인하는 면죄부가 아님을 거듭 명심하라.

열린마당 조계종신도회

올해도 작년에 이어 조계종이 전국 조직의 신도회조차 없이 최대 명절 부처님오신날을 보냈다. 이런 가운데 총무원이 중앙신도회 창립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신도회가 창립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신도회 40여년 전통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조계종 총무원의 입장은 확고하다. 개혁에 걸맞는 신도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조계종 신도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전망한다. 〈편집자 주〉

24개 본사·직능단체 동참 "새 술은 새 부대에"

김 동 혼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 대변인〉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하고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신도회가 새롭게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불자들로부터 많은 우려섞인 얘기가 들린다. 대표적으로 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개혁회의에서 새로 제정된 신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신도회는 조계종 총무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돼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창립과 관련된 모든 일정과 준비사항은 총무원과 긴밀한 협의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많은 제약 가운데서도 개혁종단에 걸맞는 민주적이고 전국적인 신도조직을 꾸리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미 전국 24개 교구본사를 대표하는 대의원이 참여했고, 1천3백여명의 발기인과 지하철법우회 등 20여개 직능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중앙신도회를 교구본사와 직능단체, 교계지도자들로 구성하려고 한 조직원칙에 충실하게 창립준비가 진행중이다. 1차 창립시한으로 예정하고 있는 6월말까지는 주요직능단체들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조직확대에 보다 심혈을 쏟을 계획이다.

조계종의 종헌 종법에 따라 정통성을 갖는 유일한 신도대표기구는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이다. 조계종 신도법에 따른다는 전제하에 어떤 단체나 개인도 동참할 수 있는 문호가 항상 열려 있다.

한국불교가 짊어져야 할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신도회를 건설하는데 모든 불자가 벽돌 한장 쌓는 정성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40년 역사 인정…신도조직 이원화 막아야

이 건 호 〈전국신도회 활성화대책위원〉



근래 조계종 전국신도회에 대해 좋지 않게 알려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재가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또 직간접적으로 신도운동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못함은 솔직한 심정이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조계종 전국신도회는 1950년대 한국불교의 일대 변혁기를 헤쳐오며 조직된 전국규모의 신도단체이다. 당시 종단의 원로 대덕 중진스님들의 정화대열에 동참하였던 이종익 김한천 현오 이무애 박충식 황의돈 박사님을 비롯하여 김금강심 진무착행 장대보화 박보현성 박보현심 송정광명 손지행자 조대법화 김법련화 등 많은 신남신녀들이 스님들의 뒷바라지를 했었다.

이후 장기적인 계획으로 정통종단을 수호하기 위한 신도조직의 절실함을 느껴 분산된 힘을 하나로 모아 전국신도회를 결성했다. 또 조계종 종법인 신도단체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신도회의 명칭에 '조계종'을 쓰게 되었다. 한국불교의 법통을 잇고 통합종단으로 공인된 대한불교조계종의 외호를 위해 각급 신도조직과 신도단체들을 효율적으로 통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와 사실로 보아 현재 조계종전국신도회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나 명칭의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둔다. 중앙신도회 창립은 앞으로의 우리 조계종단을 위해서도 재고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종단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국신도회 대의원들의 결의를 다시 한번 밝힘으로써 총무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지켜 어떠한 어려움과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의 법통을 계승 발전시켜 갈 것을 다짐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신도회가 지난 11일 중앙신도회 창립 중지를 조계종 총무원에 요청키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전국신도회는 송월주 총무원장을 방문, 조계종의 합법적인 신도단체는 전국신도회임을 강조하며 회장 추천을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신도회 준비위와 조계종 총무원은 개혁회의에서 개정된 신도법에 따라 조계종의 유일한 신도조직은 중앙신도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중앙신도회 준비위는 전신회의 창립중지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신도회 유일조직 '낙점'

총무원입장 '전신회 해체후 중앙신도회로'

전신회 대의원총회서 탈조계종화 움직임

조계종 총무원의 전신회 부정은 이미 지난해 1월 중앙신도회 구성 논의단계부터 공식화한 것이다. "과거 신도단체가 소수에 의해 전횡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사례를 비추어볼 때 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가진 신도조직의 필요성은 더욱 간절한 것이었다"며 전국신도회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즉,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도조직의 결성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 당시 전국신도회는 와해상태나 다름없었다. 당시 회장이었던 조기현씨가 상무대비리로 구속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2월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조씨의 임기를 4월까지 보장키로 하면서 조씨는 재기를 노렸고, 이 대회에서 활성화대책위를 구성, 재건에 나섰다. 그러나 조씨의 회장임기보장은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이 조계종 신도회의 회장이 되어선 안된다는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고, 조씨는 한달만인 3월초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써 전국신도회는 조씨에 따른 부담감을 덜었고 "한사람의 문제로 전국신도회 전체를 부정해선 안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이어 지난 1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새회장 선출을 유보한 채 조계종 총무원에 중앙신도회 창립중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신도회 내에서는 꼭 '조계종' 전국신도회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지부장은 "각 시도 신도회는 특정종단에 대한 귀속감이 희박하다"며 탈조계종화의 움직임을 전했다. 따라서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의 결의는 독자적인 신도단체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독자화에 따른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안을 깔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신도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총무원의 입장은 확고하다. '전국신도회 해체 후 중앙신도회 합류'가 기본 방향이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불구경

목어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연등축제가 열린 지난 19일. KBS-TV는 밤9시 종합뉴스에서 머리기사 다음으로 연등축제를 보도했다. MBC는 휴일 표정 묶음속에 3번째로 내보냈고, SBS도 밤8시 종합뉴스에서 간단히 취급했다. 이날 공교롭게도 어느 교회에서 4천명이 헌혈한 장면이 방송마다 보도됐고, 연등축제와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1975년에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제정된 이후 '무명을 밝히자'는 제등행렬은 시민들의 시선을 끄는 거리축제로 자리를 굳혔다.

초파일은 우리민족의 민속명절이다. 연등을 밝히는 세시풍속을 살려 국민가슴에 알게 모르게 스며있는 정서적 불심을 피어나게 하자는 그 뜻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래서 벌써부터 '초파일 행사 국민축제로'라는 슬로건이 내걸렸고, 올해는 예년에 비해 신선하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등장했다. 불자들은 물론 거리의 시민들도 외국인도 신명나서 축제의 마당에 어울렸다.

소록도에도 연등 밝혔더라면…

그러나 여기서 숙고해야 할점은 같은날 있었던 헌혈 장면을 보며 왜 마음이 편치 않았느냐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초파일 공휴제정 4반세기를 보내면서 연등축제의 질적인 문제를 돌아봐야겠다. 성대하고 화려한 양적 성장에 비해 안으로는 얼마나 알찬 연등을 밝혔는가 점검해 보자.

종교의 행사는 모두 법회다. 때문에 아무리 축제라도 법회답고 종교다운 검소함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화려한 쇼, 일회성 행사로 봉축의 뒷마당이 공허해서는 안된다.

BBS의 봉축특집 프로그램에 의하면 외로운 이들이 서로 등기대어 살고있는 소록도에는 올 부처님오신날 연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연등을 밝히는 이유와 그 공덕에 대해 알고 있다면 진정한 국민축제는 어떠해야 하는지 답도 나올 것이다.

금년 연등축제를 본 불자들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너무 좋았어요. 불교도 이제 이 정도다 싶어 불자의 긍지를 느꼈습니다." "더이상 화려할 이유 없다." "포교전진대회 같은 느낌의 물량공세는 화려한 집들이와 무엇이 다른가."

부처님께서는 어떤 봉축행사를 바라실까.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착한 친구

착한 친구는 남을 내몬처럼 생각한다. 게으름을 피울 때 깨우쳐 주고, 일을 방해하지 않거나 의심하지 않으며, 허물을 보아도 꼬투리를 잡으려 애쓰지 않는다.

〈잡아함경〉

협찬 영제한의원
원장 김 영 삼
TEL.(0336)32-1100

대흥사 여름수련법회 수련생 모집

서산스님의 임제선풍과 초의스님의 차향이 어우러진 대흥사에서 4박5일 여름 수련법회를 엽니다.
묵언 속에 좌선·경전새김·발우공양을 여러 도반과 함께하는 혼자의 시간이자,
우주를 집삼아 시간의 무대 위에 나를 녹여 하나의 생명으로 복귀하는 빛의 자리입니다.
귀한 법석을 함께 연출해 낼 선남선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서 양식

대흥사 여름수련법회 참가 신청서

이름: 한글_____ 한자_____ 불명_____ 성별: 남, 여
주소 :
주민등록번호: _____ 전화 및 팩스 _____
직업 또는 학교 : (구체적으로) 종교:
수련회 경험 유유 : 無 ( )
有: _____ 寺 _____ 년도 제 차
참가소견(자세하게):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일정표

찻 수	기 간	모집인원	신청마감일	대 상
1차	7월 7일 - 11일	40명	6월 24일	19세~50세
2차	7월14일 - 18일	40명	6월 24일	19세~50세
3차	7월21일 - 25일	40명	6월 24일	19세~50세
4차	7월28일 - 30일	70명	7월 20일	초등학교
5차	8월 1일 - 3일	70명	7월 20일	중·고등학교
※6차	8월 4일 - 8일	40명	6월 24일	19세~50세
7차	8월11일 - 15일	40명	6월 24일	19세~50세

※6차는 수련 경험이 있는 사람

유의사항

◆ A4 용지에 좌측 양식대로 본인이 직접 각 항목 충실하게 기재,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십시오.
◆ 정원 관계상 수련원 소정의 심사원칙에 의해 선발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 6월 30일까지 동참 가부를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동참이 확정된 후 불참 사유가 생기면 즉시 본 수련원에 알려주십시오.

준비물

■ 1.필기구 2.세면도구 3.침구 4.고무신(운동화) 5.우산 6.손전등 7.동참금6만원(교재대 포함·수련당일 납부)

교통편

■ 서울에서 고속버스 : 강남터미널 호남선-해남행(5/30분소요) 8회→7:20/8:30/10:00/11:00/13:40/15:00/16:00/17:55
■ 비행기 : 1. 서울 - 광주/광주 - 해남(버스1:40분 소요)
2. 서울 - 목포/목포 - 해남(버스1시간 소요)
■ 해남 - 대흥사 : 버스 25분/택시15분 소요

보낼 곳

우 : 536-810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흥사 수련원

문의 및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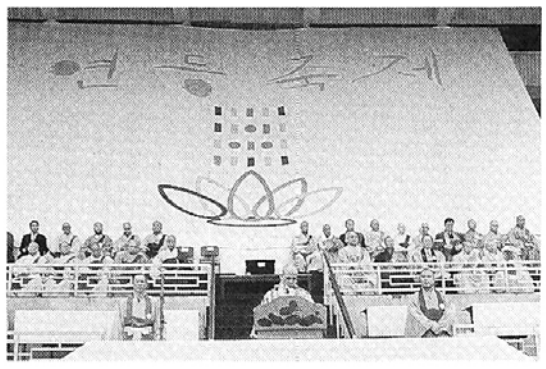
전화 : 0634-34-5502, 5503
팩스 : 0634-35-5357

대한불교조계종 제 22 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석 천 운 합장

행사 '신선' …국민축제로 진일보

부처님오신날을 보내며 … 기자방담

일요일 행사진행 교통불편 덜어
그늘진 곳에 연등 더 많이 밝혀야



◇올해 처음 열린 연등축제는 시민의 참여유도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대회단상 모습. 〈고영배 기자〉

-김영삼대통령은 신한국당총재이름으로 지난해는 전국 3백70여 사암에 연등을 달았으나 금년에는 2백여개가 더 많은 5백40여 사암에 연등을 달았습니다. 이처럼 지난해에 비해 많은 등을 단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불심달래기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연등 늘어 눈길

-일요일을 선택해 연등축제를 한 것은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준 효과를 가져와 예년의 토요일 제등행진보다 좋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사를 한 곳으로 집약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강 고수부지나 잠실운동장 등에서 포괄적인 축제를 갖고 제등행진만 도로에서 하되 한쪽 차선만 이용한다면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이 훨씬 줄어들 것이란 의견입니다.

-부처님오신달 5월을 맞아 각 학술단체에서 연 불교관련 세미나는 어느해보다도 풍성했습니다. 동국대가 개교 90주년을 기념하며 개최한 세미나를 비롯 서울에서만 모두 5개 단체가 불교관련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한국불교의 현주소와 미래불교의 방향 제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세미나가 조계종 총무원 주최 불교문화전반을 다룬 세미나입니다. 미술 문학 음악 성보 등 4주제로 나누어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불교문화의 현황과 발전 전망을 모색해 본 것은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우리 불교문화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자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듣는 청중이 너무나 적어 모처럼 마련된 자리가 안타까웠습니다. 매년 많은 세미나가 개최되지만 발표자들이 민망할 정도로 청중들이 적은 것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와 더불어 음악회 전시회 등 문화행사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행사들이 한꺼번에 열리다 보니 홍보나 참여율에서 제대로 진가를 드러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더구나 불국사 열린음악회와 부모은중송 공연 등 일부 음악회는 공연장 좌석수보다 훨씬 많은 표를 뿌리는 바람에 보려고 온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지요.

-어린이 불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날과 아기부처님오신날이 함께 있는 부처님오신달에 맞춰 아이들과 함께 읽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불서들입니다.

방송사 봉축특집 다양

-다양한 공개방송과 생생한 현장중계방송은 예년과 비교해 돋보였습니다. 안산, 부천등에서 열린 BBS의 공개방송에는 많은 불자와 주민들이 성황을 이뤘고, 지난 19일 연등축제거리 종묘공원에서 열린 BBS '온누리에 자비를' 공개방송, 등도 부처님오신날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대중포교의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KBS, SBS, MBC, EBS 등 공중파 방송들이 월하스님대담, 남방불교 기획프로 등 작년에 비해 자체제작 특집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한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최초로 부다피아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전세계 불자들이 한국봉축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고 자국의 봉축소식들을 보내오는 등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져 전세계 불교정보교류 화합의 원년으로 자리매김됐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선사들(Zen Ancestor)'과 '불교도우회(Friend of Buddhism)' 홈페이지는 부다피아를 통한 한국의 봉축행사소식을 전자게시판에 올려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다피아를 통한 한국과의 불교정보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범패시연으로 특별상까지 수상한 태고종이 연등축제에 불참했습니다. 29일 월드컵유치기원법회 행사준비로 바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내심 안으로 종단의 스님들이 의전상 홀대받는 것에 불만이 커 불참했다는 후문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행사니 만큼 범시민적 축제로 유도하는 마당에 모든 종단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봉축위 관계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사 청소년음악회 호평

-전북지역에서는 올해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아 지난 21일 금산사에서 전북불교총연합회주최로 청소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녹색지대 이예린 룰 걸 심수봉씨등 인기정상의 연예인과 1만3천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미약한 전북불교의 미래를 밝게 했습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식행사는 아니었지만 연등축제 회향식 본공연이전에 20여분간 무대밑에서 레크리에이션을 공연할 계획이었답니다. 연등축제 며칠전에 모스님이 행사점검차 나와 누가 준비한 행사냐고 묻더랍니다. 회장인 태고종 법현스님이 준비하고 있다고하자 아무 설명도 없이 공연을 못하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정리=정성운 기자

봉축 취재반

이경숙차장	이준엽차장
임연태차장	정성운기자
김원우기자	한명우기자
김재경기자	김중근기자
도필선기자	이은자기자
오종욱기자	고영배기자

경 찰 '민감한 사안' 얼버무리기

사찰 방화범 왜 못잡나

최근들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찰 방화사건에 대해 범인을 '왜 잡지 못하나'하는 것이 교계의 첨예한 화두거리다. 그것은 지난 90년 5월3일 발생한 불교 방승국 방화사건과 관련해 사건발생 1년후 모 선교회 소속 법인 한명이 수사당국에 전화를 해 자신이 범인이라는 제보를 해왔음에도 경찰측은 이에대해 아직까지 범인을 검거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훼불사건과 관련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에 대한 불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이처럼 교계에서 발생한 훼불사건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못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찰 방화사건의 경우를 놓고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동안 20여차례에 걸쳐 방화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결과는 항상 불투명했다. 이에대해 불자들은 경찰이 범인을 못잡기보다 안잡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조차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 왜 경찰측은 방화사건과 관련한 편향적인 사고와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사건을 얼버무리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로인해 이교도들에 의한 훼불방화사건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지난 4월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한 삼성암 본원정사 화계사의 방화사건을 초래한 것이다.

용의자 자백해도 무혐의 처리 '편파' 의혹

특히 지난 화계사 방화사건 이후 조계종 총무원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화사건이 예전처럼 수사가 종결된다면 종교간의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한 뜻도 비춰 경찰수사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중근 기자

방화일지

▲1986. 12. 6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보물 476호)전소. 유력한 용의자로 이교도를 검거 자백을 받았으나 경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

▲1987. 12. 3 제주 대각사와 관음사 화재 발생. 경찰은 양신하씨를 범인으로 검거했으나 정신이상에 의한 우발적인 소행으로 처리.

▲1988. 9. 25 부산 범어사 화재 발생, 명부전과 보물급 탱화 16점 전소, 화재원인 밝혀지지 않음.

▲1988. 12. 8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 전소, 방화로 추정되나 범인은 못잡음.

▲1989. 7. 29 성동구 보타사 대웅전과 요사채 전소, 대순진리회 교도인 용의자 검거했으나 우발적 소행으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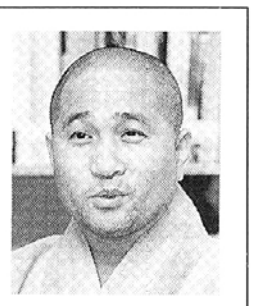
▲1989. 10. 27 대구 보현사 대웅전과 요사채 전소, 경찰은 누전으로 추정 수사종결.

▲1991. 10. 29 서울 봉원사 대웅전(서울시 문화재 68호) 전소.

▲1996. 4. 20 서울 삼성암 종각과 본원정사 대웅전 나한전 전소. 경찰은 방화사건으로 추정하고 수사중.

시 론

불교시민운동의 방향



영 담
〈석왕사주지 · 부천시민신문발행인〉

불교계의 근대시민사회운동은 다른 종교나 사회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시작되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조 5백년의 억불로 인한 불교의 산중화와 가깝게는 역대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종단의 파행적 운영을 들 수 있다. 70년대 후반부터 종단 바깥에서 한국불교의 침체와 낙후된 현실을 자각한 소수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80년대 사회 전반의 민주화과정에서 불교사회운동 세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종단과 함께 하지않은 불교의 시민사회운동은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해 여전히 일정궤도에 올라서지 못했다.

지역사찰이 앞장서자

94년 조계종 개혁 이후 불교계 시민사회운동은 전반의 사회참여의식의 고양에 힘입어 비로소 일정한 틀을 갖추고 진행하게 된다. 특히 조계종에서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전개하면서부터 불교계도 이제 부처님가르침을 혼자가 아닌 이웃과 더불어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 교육, 환경, 인권, 통일, 복지, 문화, 지방자치 전반에 걸쳐 사회참여와 실천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불교계의 시민사회운동은 그 방향을 바로 세우고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공염불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바른 시민사회운동은 대중의 의식을 계도하고 사회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 부정과 비리등을 찾아내서 그것을 공론화시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즉 다수 국민의 인식전환, 지역주민의 공익과 공공성을 위하여 문제의 제기에서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불교계의 사회참여 방식은 법회나 강연을 통한 문제제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역에 환경을 파괴하고 업자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도시개발이 진행된다고 하자. 그 지역의 사찰에서 그 도시개발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그 도시개발은 그대로 진행되고 말 것이다. 사찰이 지역안에 다른 단체들과 함께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공감을 끌어내고 다양한 압력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도시개발을 저지하는데까지 함께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문제의 해결까지 책임지는 불교의 시민사회운동을 위해선 '깨달음의 사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평생의 업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인재들은 우선 사찰의 어린이법회에서 시작하여 학생회, 청년회 등을 거쳐 전문적 불교사회교육기관을 통해 길러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도력들이 자기 전문성을 갖고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불교의 사회참여 공간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지방화시대에는 각 지역의 단위사찰들이 지역사회문제에 앞장서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불교의 사회참여주체들의 우선적 활동공간은 지역단위 사찰에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 사회변화의 추세는 정보화, 자동화시대의 엄청난 변화, 발전에 따라 사람이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사회, 문화적 활동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문명사적 시대변화를 불교계가 앞서 이끌어 가려면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실천에 역점을 둬야 한다. 불교의 시민사회운동은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지만 종단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단위사찰을 주요 활동공간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면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 불교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신문도 발행할 수 있고 쇼비자단체를 만들 수도 있으며 다양한 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단순한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적으로 실현한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길러내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참여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와 이웃 왜 하나인가

불교의 시민사회운동은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이제까지 다른 사회단체들을 보면 실천할 의지도, 역량도 없이 성명서나 내고 마는 일회성, 캠페인성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불교의 시민사회운동은 전문성을 기르고 운동의 다양화를 기하며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바르게 지적하고 해결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실천적 시민사회운동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왜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인가, 연기법에 의한 이 가르침이 바르게 이해되고 실천으로 이어지면 불교시민운동은 사회정화운동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불국정토 건설의 길을 열게 된다. 그것은 곧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통한 보현행원실천이며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려는 불자들의 참된 사홍서원이라고 생각한다.

생활속의 불교 ⑮

그의 것을 그에게 되돌려 주어라,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도 100% 내것은 없다. 건강도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100% 내것은 아니다. 그것은 서로 돕고 서로 거들고 서로 의지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상대적인 세계 속에 사는 한은 그렇다.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로빈슨크루소가 생산한 농작물도 100% 그의 것이 아니다. 하늘이 돕고 땅이 도운 것이다. 햇빛이 돕지 않았으면, 바람이 돕지 않았으면 생산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 순간의 돌풍에 쑥대밭이 되었을 수도 있고 찌는 듯한 더위에 말라 죽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늘이 돕고 땅이 도왔으므로 100% 자기 노력이라고 할 수 없다.

지구도 태양계의 인력에 의해 평형을 유지하며 제 궤도를 돈다. 또 달이 밀고 당기는 힘에 따라 밀물 썰물이 생기고 사람과 물고기들은 그 덕을 본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이 얼키고 설킨 현대 사회구조 속에서는 서로 돕는 상보(相補)의 관계란 더 이를 나위가 없다.

남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편히 살 수 없고 물건 하나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했다면 적어도 수만 명의 도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고로 내가 가진 것, 내것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것 어느 하나라도 100% 내것은 없다.

남의 도움을 받은 만큼, 남의 손을 거친 만큼 내 몫은 줄어든다. 순수한 나의 지분(持分)은 적어진다. 고로 비록 내 수중에 있는 것이라도 100% 내것이라 고집해서는 안 된다. 고로 비록 내 소유로 되어 있을지라도 다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

도와 준 만큼, 도와 줘서 감사한 만큼 나누어 주어야 하다. 내 소유가 되기 전까지 나도 남을 위해 도울 만큼 도왔으니 내 수중에 든 것은 내 것이라 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정한 계산법에 따른 결론인가. 아무도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도 남을 도울 만큼 도왔으니 계산은 이미 끝난 것이라 하자. 그러나 태양의 몫, 바람의 몫, 물의 몫, 흙의 몫…은 어떻게 하겠는가. 정확히 산정했으며 줄 만큼 주었다고 하겠는가. 그런 몫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으니 무시해도 된다면 그건 오만이다. 남의 몫에 대해 이미 계산을 끝냈다는 이기적 계산법과 다르지 않다. 욕심이요, 오만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기 편의이다. 고로 나누어야 한다. 이웃과 나눠야 하고 사회와 나눠야 하고 자연과 나눠야 한다. 그런데 내가 이웃과 나누기를 거부하고 사회와 나누기를 거부하면 이웃도 나와 나누기를 거부할 것이요, 사회도 거부할 것이다. 자연도 더 이상 돕기를 거부할 것이다. 그리되면 우리의 삶은 머지 않아 존재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나눔은 곧 되돌려 줌이다. 그의 몫을 그에게 되돌려 줌이다. 실은 내것을 나누어 주는 것, 내것을 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의 것을 그에게 되돌려 줌이다. 잠시 내가 맡았던 것, 내가 관리하고 있던 것을 되찾아 가도록 함이다. 그가 내게 맡긴 것을 내가 착복하지 않고 돌려 줌이다. 그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반환함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그의 것을 그에게 되돌려 주는데 그일에 사회는 박수를 친다. 칭찬한다. 좋은 일 했다고 표창하고 이름 새겨주고 공덕 쌓았다고 한다. 내것 아닌 것을 돌려 주는데 내것 준 것처럼 대접받는다. 또 빚을 진 것인가, 금상첨화인가.

도둑질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협찬 : 윤 태 원

법회 안내

묘각사(02)763-3345

인등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영신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1시

일지사(02)878-3653

자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밀교교리강좌 매주 수 오전11시
어린이한자교실 토·일 오후3시

대승종 중앙포교회관 (02)523-024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일반·합창단법회 토 오후2시

화엄정사(051)206-5515

정기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매월15일(음) 오전11시
불교대학강의 목·금 오후8시

영화사(051)416-3521

정기법회 매월1일(양) 오전10시
매월1일(음) 오전10시

삼장사(0397)73-2487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저녁8시
일반신도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심락사(0394)31-408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반신도 매월22일 오전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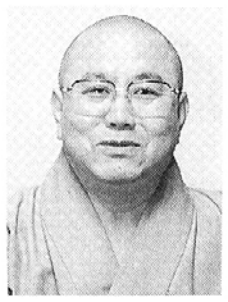
관음사(0391)43-2985

통합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강릉명주 거사림회 매월
셋째주 토 오후5시
관음불교청년회 매주 화 오후7시
강릉불교청년회 매주 목 오후7시
대학생불교연합회 매주수 오후6시
불무리회 매주 토 오후6시
고불학생회 매주 토 오후2시
여교사불심회 매월1일
저녁7시30분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기획단 상설 범국민 축제 유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집행위원장 **법 타** 스님



5월을 봉축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쳐온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 법타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금년 봉축행사는 불자뿐 아니라 전국민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처음으로 시도한 연등축제가 좋은 호응을 얻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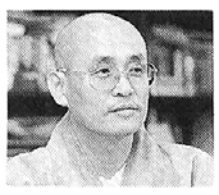
법타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중생과 함께 하는 불교, 미래지향적 불교를 보여주고자 새로운 시도를 했다"며 "특히 봉축휘장 및 각종 캐릭터 제작, 연등축제, 시청앞 연꽃점등 등에 보탬을 느낀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경비조달과 전문인력부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스님을 비롯 지도급 불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스님은 "앞으로 봉축행사가 범국민적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봉축기획단을 상설화하여 4대 불교명절을 비롯 불교행사를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작은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사회사업 복지부장관상 **정 일** 스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정일스님(의곡사 주지)이 지난 22일 사회복지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불우이웃돕기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더 열심히 이웃을 보살피는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불제자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쉬지말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격려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사)감로심장회의 초대 이사장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장병환자 돕기를 수년째 해오고 있다. 그렇게 보살펴온 환자가 매달 2명씩, 1백20여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정밀검진 및 경상남도 농어촌 심장병 무료검진을 실시, 심장병환자돕기 및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불자의 작은 사랑과 자비심이 거룩한 새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생명공양실천과 동참을 당부했다.

스님은 또 김천 소년교도소 교정·교화위원을 자청, 5년째 청소년들에게 불심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청소년 선도에도 앞장서고 있다.

도필선 기자

"전세계 불자들 애용했으면…"

봉축 캐릭터·휘장제작 **한 상 린** 씨



"이번에 제작한 봉축캐릭터와 휘장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통용됐으면 합니다."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날 캐릭터와 휘장, 시청앞 연꽃조형물을 제작한 한상린씨(단이슬기획 대표).

연꽃에 꽃비내리는 심볼마크와 아기부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귀여운 모습을 형상화한 12종의 캐릭터는 현대적인 그래픽디자인으로 처리하여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20여년간 시청앞을 지나며 부처님의 사후 모습을 연상케 하는 탑이 딱딱하게 서있는 것을보고 불자미술인으로서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조형물을 모셔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청앞에 꽃을 피우자는 제안을 받아들여준 봉축위 관계자들이 고맙다는 한씨는 불교도이제는 문화적·시각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불교 용품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일반물품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교차로

월드컵유치 격려금전달



덕암스님(태고종 전 종정)은 지난 13일 2002년 월드컵유치기원법회를 준비중인 태고종총무원에 1천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대한장애인공예협 위문



혜초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은 지난 9일 총무원 간부스님 10여명과 서울 상계동 대한장애인공예협회를 방문하고 각종 옷가지와 운동용품 20박스를 보시하고 위문법회를 개최했다.

탑골공원서 탑돌이 법회



원산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은 지난 22일 탑골공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원각사지 탑돌이 법회를 봉행했다.

기관지 '실천불교' 창간



지선스님(실천승가회 공동의장)은 최근 실천승가회 기관지 〈실천불교〉 창간호를 발간했다. 〈실천불교〉 창간호에는 사찰부동산관리법의 종책진단, 사업부의 종무비평, 남북합의서에 대한 시사해설, 종법 바로알기 등의 기획으로 구성했다.

용인양로원서 위안잔치



각현스님(연꽃마을 이사장)은 지난 23일 연꽃마을 용인양로원에서 입주노인 및 인근지역노인 2백여명을 초청 경로위안잔치를 열었다.

불교 인권상 시상식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길상사에서 불교인권상 시상식을 갖는다.

구민 경로대잔치 열어



상륜스님(양천구민체육센터 관장)은 지난 28일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구민 경로대잔치를 열었다.

지역 청소년에 장학금



혜승스님(의정부 포교원장)은 지난 24일 개최된 의정부 합동법요식에서 지역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12년 음악활동 회향음악회



묘심스님(금강선원장)이 12년 음악활동을 회향하는 고별음악회를 오는 6월5일 저녁 7시 서울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갖는다. 신체장애자돕기 자선을 겸한 이 음악회에는 테너 조풍상 조영수, 소프라노 권영희씨 등과 인기가수 조영남씨가 특별출연한다. (02)596-7162

'비전 동국100년 후원의 밤'



송석구총장(동국대)은 동국대를 21세기 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29일 오후6시30분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비전! 동국100년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02)260-3792

'신라불교 여래장…' 출판회



이평래교수(충남대 철학과)는 오는 6월11일 오후 3시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신라불교 여래장사상 연구〉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체육가족 평안기원 법회

김대성씨(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회장)는 지난 22일 올림픽회관에서 체육가족의 평안과 화합을 기원하는 봉축법회와 연등행사를 봉행했다.



국립경찰병원 환자 위문법회

국민과 사회질서 안녕을 위해 근무도중 부상당한 경찰관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는 국립경찰병원(경승실장·혜광) 입원환자 위문법회가 지난 20일 조계종 복지재단(이사장 월주) 주최로 서울 가락동 경찰병원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월주 성타 원우스님, 김우석 내무부장관, 황용하 서울경찰청장등과 2천여명의 경찰가족과 입원환자가 동참했다.



자민련 불자당선자 축하법회

자유민주연합 불자국회의원 당선자 축하법회가 지난 22일 오후 자민련불자회 주최로 서울 오금동 호국룡도사 포교원에서 봉행됐다.

축하법회 및 경로잔치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자민련불자회장 김용채 부총재와 구천서 이양희 주양자 당선자를 비롯 1백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영담스님 '미얀마 사진전' 성료

영담스님(부천 석왕사주지)은 지난 18~21일 예총회관에서 '부처님과 탑의 나라 미얀마' 사진전을 가졌다.

1백여점이 전시된 사진전 개막식에는 설정 종하 정휴 일면 종훈 법현스님등과 석왕사 신도 1백여명이 참석했다.

영담스님은 이 사진들을 엮어 127쪽의 울 컬러 사진집 〈부처님과 탑의나라 미얀마〉도 펴냈다.



52사단 호국광명사 법당낙성식

제52사단 호국광명사 법당 낙성식이 지난 20일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성타(포교원장), 영담(석왕사 주지)스님과 2백여명의 불자장병,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법당은 156평 기와 2층 규모로 조계종 종단에서 2억원, 부천 석왕사에서 2억5천만원의 지원으로 완공됐다. 이날 낙성식에는 호국광명사 간부불자회 총무 김영국상사가 표창을 수상했다.

게시판

▲7 금마련 특별서화전=부산불교고등학생 육성기금마련 특별서화전이 부산불교고등학생지도위원회(회장 이종관) 주최로 오는 6월4일까지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 강당에서 개최된다. (051)634-5114

▲하안거 시민선방=(재)선학원 중앙선원은 하안거 시민선방을 5월31일부터 8월28일까지 개설한다. (02)732-3327

▲'화엄종조사회전' 출판기념회=법융사 주지 승해스님과 김지견 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은 오는 6월10일 오후 6시30분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화엄연기-화엄종조사繪傳〉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02)732-2403

화촉 이상봉씨(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근무)와 한명순씨(조계종 재무부)가 6월2일 오후1시 한국일보 12층 예식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김민석PD(불교텔레비전) 가 6월2일 오후1시 전북불교회관에서 김양희씨를 신부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속초복지관 경로효도잔치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은 지난 16일 신라예식장에서 제3회 재가노인경로효도잔치를 궐했다.

재가노인들의 소외감·고독감해소와 지역 주민들의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속초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1천2백여명을 비롯 신흥사의 신행단체인 달마회, 금강회등이 참석했다.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봉축합니다.

○ 불기 2540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를 비춥니다.

작년 5월 27일 조계사에 「몸을 피하기 위하여 들어온 5만 조합원들」의 감사의 마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95년 6월 6일 엄숙한 현충일 아침,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의 중재와 협상 제의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문민정부는 부처님 처소에 공권력을 투입했습니다. 그 때 끌려간 사람은 괘씸죄에 걸려 전원 파면 구속되어 아직도 복직되지 않고 있습니다.

○ 스님들과 재가불자님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정보통신시대라 합니다. 개인휴대통신(PCS)이 시작되면 우리국민 모두가 지금의 전화기처럼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PCS 사업권을 재벌들이 모두 가지고 간다면 공공성과 보편적인 써비스를 받기 어렵게 될것입니다. 재벌들은 모두 돈이 되는 일만 할것이고 산간벽지나 독도까지 국민모두가 이용할 공공통신은 국민의 통신, 시민의 통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은 정보통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 통신을 미국, 유럽 등 외국은 겨우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정보통신 시장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시장개방요구에 이땅의 재벌들은 세계화, 혹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통신을 재벌들이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도 전법되어 저희 노동자들의 주장이 반영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이렇게 주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통신시장개방반대, 재벌의 통신장악음모도 반대합니다.
- 정부가 민영화라는 미명아래 통신산업을 재벌에게 주기 위한 전초전인 114유료화 정책을 반대합니다.
- 해고자 31명 복직을 요구합니다.
- 대국민 3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월22일 현재 52만명 서명동참)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한국통신 노동조합(750-5419, 750-5420)

20년 실패거듭 황금백자 '결실'

산문밖의 禪

도예가 은정식 씨

"교리이해·솜씨 어우러질때 진정한 불교예술가"

실패도 성공의 일부…초조는 작품구상의 큰 적

그는 쉬고 있었다.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삼성리의 분원요(分院窯)는 신록에 덮혀 고즈넉했다. 보름간의 작업 끝에 단 한점의 도자기를 완성하고 쉬고 있는 은정식씨(46세).

그러나 그는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산고(産苦)를 씻어내고 있었다. 완성된 도자기를 감상하는 법열을 누리고 있었다. 화염변상도를 지름 45㎝ 가량의 접시형 진사도자기에 순금으로 그려 넣은 새로운 작품을 완성한 뒤 은씨가 누리는 법열. 이런 기쁨은 그를 도예인으로 살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수록 마음이 넉넉해 집니다. 어렵게 완성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또하나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진사와 순금이 어우러진 변상도 접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은씨가 새로 완성한 작품은 철사나 청화보다 훨씬 어려운 진사도자기와 순금의 접합을 절묘하게 이뤄낸 것이다. 구리를 1천 3백도의 불에 태워 얻은 가루로 진고등의 바탕색을 삼고 그 위에 다시 순금으로 변상도를 직접 그려 넣은 이 작품은 도예기법과 변상도의 새로운 만남을 시도한 것이다.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 주지 않고 혼자 감상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그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보람을 만끽하고 있는것이다.

"불교미술의 세계로 발을 들여 놓고 보니 이제껏 도자기 공부한 것은 연습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조각이건 평면화건 불교미술은 교리와 솜씨와 조형미를 종합적으로 터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엄두도 못낼 일임을 알게 된 것이죠. 황금백자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왔으나 이제 그 황금백자를 불교미술로 완성해야 한다는 신념이 생겼고 이 작품이 그 첫 결실인 셈입니다."

황금백자. 20여년간 은씨의 화두였다. 남들이 내놓지 않는 작품을 하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에서 황금백자를 떠 올렸고 관련 문헌을 뒤지다가 실제 황금도자기에 대한 기록도 찾아 냈다. 〈고려사열전〉에 원나라 진상용으로 청자에 금화(金畫)를 그린 도자기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제작기법은 전혀 전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혼자 연구하고 도전하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20여년을 보내야 했다. 재료가 '금값'인 황금을 버려가며 가난을 견뎌내며 그는 세월과 자신의 역량 그리고 황금과의 싸움을 했던 것이다. 그런 고난의 세월 끝에서 그는 성공했다. 몇차례의 전시회와 국제특허획득(제077859호)이 그의 손을 황금의 손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황금과 흙은 쉽게 만나지 않더군요. 성공했는가 싶으면 도자에서 금이 떨어져 나갔고 다시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보통의 도자기는 재벌만 구우면 되지만 황금도자기는 일곱번까지 가마에 들어가기 일쑤입니다. 물론 그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온도의 조절인데 이 온도의 조절에서 성공과 실패가 가름됩니다."

황금백자의 맛은 순박함과 화려함의 조화에 있다. 백자의 순박과 황금의 찬란이 만나 이뤄내는 아름다움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두 극단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자칫 유치해지기 쉽다. 거기다 창작도자기의 형상과 금의 조화도 쉽게 생각할 점이 아니다. 흙과 불과 금 그리고 작품의 형태가 모두 '궁합'이 맞아야 하는 것이다.

백자나 청자는 한 가마에서 30% 내지 40% 완성품을 건진다지만 황금백자는 그렇지 않다. 성공 아니면 실패다. 금이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금을 금답게 발색(發色)시키기도 어렵지만 흙도 흙 나름대로 황금을 만나면 까탈을 잘 부리기 때문에 매번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마에 작품을 넣고 불을 지피고 다시 가마를 열기까지의 과정이 가장 힘듭니다.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염려로 온 몸이 긴장 되니까요. 그 긴장으로부터 초연해 질수 있다면 그 순간 나는 도자기 굽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 그 경지가 쉬운 것이겠습니까. 가마의 문을 여는 순간 성공과 실패가 금방 느껴집니다. 실패에서 좌절하지 않는 마음만 제대로 지켜도 큰 도공이라 할만 하지요."

20년의 연구와 실패 끝에 그가 황금백자에 자신감을 가진 것은 90년부터다. 91년에는 운보 김기창화백과 공동작업으로 황금도자기전을 열어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실패할 확률은 여전히 안고 있다. 자신감이 곧 성공은 아닌 것이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실패도 성공의 일부라고 믿고 있다.

그는 도자예술의 필수 요건으로 전통계승과 시대정서를 꼽는다. 황금백자 제작기법을 글로 정리하고 제작과정을 비디오 테잎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누군가 계승해야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고려시대의 황금 도자를 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황금백자는 금을 금답게 발색시키기도 어렵지만 흙도 흙나름대로 황금을 만나면 까탈을 잘 부리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의 긴장에서 초연해질 때 도예가 은정식씨는 도자기 굽는 사람이 아닌 경지에 다다른다.

가마 문여는 순간 성패 피부로 느껴

약천사 1백8만 황금부처님 조성

"가마의 문을 여는 순간 성공과 실패가 금방 느껴집니다. 실패에서 좌절하지 않는 마음만 제대로 지켜도 큰 도공이라 할만 하지요."

20년의 연구와 실패 끝에 그가 황금백자에 자신감을 가진 것은 90년부터다. 91년에는 운보 김기창화백과 공동작업으로 황금도자기전을 열어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실패할 확률은 여전히 안고 있다. 자신감이 곧 성공은 아닌 것이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실패도 성공의 일부라고 믿고 있다.

그는 도자예술의 필수 요건으로 전통계승과 시대정서를 꼽는다. 황금백자 제작기법을 글로 정리하고 제작과정을 비디오 테잎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누군가 계승해야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고려시대의 황금 도자를 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흙도 흙 나름대로 황금을 만나면 까탈을 잘 부리기 때문에 매번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마에 작품을 넣고 불을 지피고 다시 가마를 열기까지의 과정이 가장 힘듭니다.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염려로 온 몸이 긴장 되니까요. 그 긴장으로부터 초연해 질수 있다면 그 순간 나는 도자기 굽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 그 경지가 쉬운 것이겠습니까. 가마의 문을 여는 순간 성공과 실패가 금방 느껴집니다. 실패에서 좌절하지 않는 마음만 제대로 지켜도 큰 도공이라 할만 하지요."

"밤이면 이곳은 그야말로 적막산중이 됩니다. 아무도 없는 이 적요 속에서 나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합니다. 세상에 없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가벼운 작업이 아니죠.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가장 큰 적입니다. 마음이 초조해지면 아무런 형상도 떠오르지 않거든요. 불상을 조성하고 변상도를 그리며 불교미술에 마음을 두고나니 마음을 비운 곳에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배우게 되는군요."

광주=임연태 기자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부처님 가르침 쉽게 알려주세요

문 초파일을 맞아 불자가 되어보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유명·서울 중구 서소문동〉

답 염화미소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테지요.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왜 한송이 꽃을 들어보이셨느냐 하면 세상만물은 모두 하나로 이어졌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에 사장이 없으면 직원이 없고 직원이 없으면 사장이 없듯이 전부가 상대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입니다. 일체는 한마음인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3천년 전에 그렇게 일러 주셨는데도 과학자들은 지금껏 그 점을 해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에 비유해 봅시다. 수만가지를 하고 수만가지를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데 그거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고정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게 꼭 바퀴돌이 같습니다. 그걸 불바퀴다, 법바퀴다 그럽니다. 한마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응용하는게 법바퀴요 불바퀴입니다. 마치 거대한 발전소에서 전력을 용도껏 끌어다 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경전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안으로 닦아가는 마음공부를 통해 한마음의 이치를 터득하면 경전에 적힌 부처님 말씀이 한마디도 한데로 떨어지지 않음을 알게될 것입니다.

이제 막 공부하실 작정을 하셨다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점을 굳게 믿어 내 마음 밝히는데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이 책 저 책 뒤적이면서 사량으로 분별지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공부는 자칫 노예의 같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무를 쪼개보아도 그 속에서 꽃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안에 꽃을 피울 잠재된 힘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안으로 불을 밝혀 보세요. 그렇다고 또 거기에 머무르는 생각을 낸다면 그 또한 무의 세계에 묶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무속의 꽃을 피우는 잠재된 힘, 그것이 바로 나를 포함해 일체 우주를 있게한 한마음입니다. 이 뜻을 잘 음미해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축생계 떨어질까 두려워…

문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매한 중생들은 혹시 지옥이나 축생계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마음 다스려야 합니까? 〈정지숙·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답 지옥에 떨어지면 어쩌나, 짐승의 몸을 받으면 어쩌나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그걸 몽땅 놓으세요. 두려움 없는게 원력입니다. 그런 것을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지요? 그렇다고 누가 지옥에 안가게, 짐승몸 안받게 해주는 것도 아니구요. 그러니 빌긴 어따가 빕니까?

잘났든 못났든 자기를 믿고… 나 없으면 우주도 없는데 뭘 그런 시시껄렁한 걸 가지고 걱정하느냐 하고 탁 내던지세요. 그렇게 하시면 다시 탄생하실 겁니다. 허허허….

'이뭐꼬'로 공부해도 되는지요

문 시심마, 이뭐꼬? 이 주인공이 무엇이냐? 하는 마음자세로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서용진·인천 부평구 구산동〉

답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질문하셨으니 다시 말씀드리지요.

예를들어 작년에 거둔 수박씨를 심어서 올해 수박을 수확했는데 이 수박이 무슨 수박인고? 하면 이미 시대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지는 말고 그냥 수박을 쩍 쪼개서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수박을 쩍 쪼개면 그 속에 수박씨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 수박씨를 봄에 다시 심으면 또 수박 열리고, 다시 쪼개 심으면 또 열리고…, 그렇게 수박씨 하나로 만중생을 먹여 살리고도 되남는 도리가 있으니 십년, 이십년 세월 보내며 이 수박씨가 뭔가 할 것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옛날로치면 모두 박사급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레 이게 뭔고? 하고 가르치면 사량만 늘게 됩니다. 그러니 수박 속에 수박씨 있는걸 아는 이상 그냥 밀고 들어가라, 탁 말기고 놓고가라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박이 절로 쩍 쪼개져 실상을 그대로 꿰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주인공 너 알아서 하라' 하고 말기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화두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몸 이렇게 나온게 화두이니 따로 화두를 붙일 필요가 없질 않겠습니까? 화두에 화두를 붙이면 긁어 부스럼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헤어나기가 무겁고 어렵지요. 그래서 화두다 아니다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분명한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음으로써 생각을 낼 수도 있고 생각 냄으로써 움직이질 않습니까? 이걸 부정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찰나로 고정됨이 없이 돌고 도는데… 세상에 태어나 한 곳에 붙박이처럼 붙어 살 수 없는데 어느 때를 나라고 하고 어느 이름을 내 이름이라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죽든지 살든지 모든게 한군데서 나오니 나오는 데에다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공을 믿으실 겁니까? 형상을 믿으실 겁니까? 이름을 믿으실 겁니까? 믿을 건덕지가 있어야 믿을테니 네 근본을 믿어라, 너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믿어라 하는 것이지요. 주인공도 이름입니다.

불우 이웃 및 청소년 돕기 자선 일일 찻집

■ 주최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제8대 총 사회 복지회
■ 주관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제9기 사회복지회
■ 후원 : 총 학생회 총 동림회 총 동창회

▶ 일시 : 96년 5월 28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 장소 : 조계사 내 산중다원
▶ 연락처 : 불교대학원 사무처 264-2085 산중다원 736-1678

생식

자연의 정기를 가득담은 生命食
대자연과 선사인류가 가르쳐준 生食
몸과 마음을 바로 잡는 正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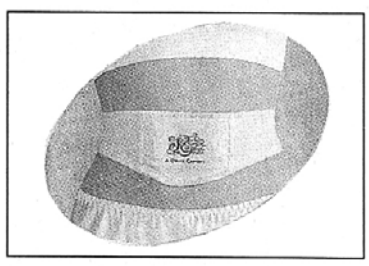
생식 산사에 계신 스님들과 여러 불자님들께
생식 어려운 생식을 쉽게 하는 방법
생식 食貪과 모든 욕심이 사라지는 생식
생식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고 자연과 함께 동화되어가는 새로운 경험의 생식
생식 맑은 정신과 건전한 육체로 정진할 수 있는 무공해 생식

생식은 현미, 잡곡, 콩류, 야채류, 과일 등 30여종의 원료를 동결건조시켜 어떠한 첨가물이나 인공감미료, 방부제 없이 제조하여 휴대하기 편하고 먹기 쉽게 1회용 포장한 분말제품입니다.

불자생식동호회
전화 : 032-655-6111/3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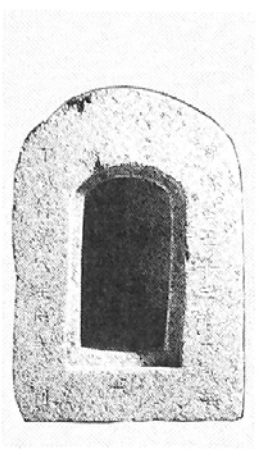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백제금동대향로



◇창왕명 사리감

백제금동대향로 창왕명 사리감 국보지정

지난 93년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百濟金銅大香爐·개칭전 백제금동용봉봉래산향로)와 백제창왕명 석조사리감이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17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열고 백제 최고의 걸작품이자 현존하는 동아시아의 향로중 최고라는 금동대향로를 국보 제287호로 지정했다. 또 감실 앞면에 사리봉안연대(567년)와 공양자가 표시돼 있어 백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백제 昌王의 이름이 새겨진 석조사리감(石造舍利龕)을 국보 제288호로 지정했다.

제6회 가산학술상 공모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지관)이 1996년도 제6회 가산학술상을 공모한다.

불교학 진흥과 전문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가산학술상 공모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공분야 미발표 논문 초록·중장기 연구계획서 각 1부와 그동안 발표된 논문 및 저술 각 1부, 추전서 2부 및 자기소개서 1부 등을 이달 31일까지 연구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02)765-9602

'불교문화재…' 세미나

국제한국학회(회장 최준식)는 오는 31일 오후 6시30분 학회 세미나실에서 '불교문화재의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을 위한 한가지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세대 국제대학원 김종명씨가 발제자로 나선다.

여주고달사 99년까지 복원

국내 최대규모의 사찰로 전해지고 있는 경기 여주 북내면 상교리 혜목산 고달사가 오는 99년까지 복원된다.

여주군은 최근 신라 경덕왕 23년(764)에 창건된 고달사를 62억원의 국비와 도비를 들여 대대적인 발굴 및 복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교사회硏 '21세기 한국불교의 이노베이션'

'무소유정신' 물질문명 극복

보시사상 사회공동의식화에 불자 앞장
평가제수립등 종단·사찰운영 혁신해야

물질로 대표되는 '소유의 문명' 시대에서 인간을 통합하고 새로운 문명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종교'이며, 특히 '무소유'의 근본정신을 지닌 불교는 조직, 인력, 사상체계 정립 등 현대물질문명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혁신을 통해 '문명의 재창조'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희식 소장(한국불교사회연구소·변호사)은 지난 16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불교사회연구소 주최 '21세기 사회변화와 한국불교의 이노베이션' 세미나에서 '두 개의 정신·두 개의 사회·두 개의 문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불교의 교리, 지식화, 정보화, 사회참여 등을 폭넓게 언급하면서 '보시의 질서'를 통한 '호혜의 원리'가 보편적인 사회원리로 작용될 수 있도록 모든 불교인이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소장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근대 소유의 문명에서 보편화되었던 삶의 양식에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문명을 찾아야 '무소유'의 삶의 양식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즉 물질문명의 소산인 '소유의 문명'은 점차 붕괴되고 있으며, 인간은 새로운 문명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서 점차 그 위치와 위상을 확보해가고 있는 제3섹터(the third Secter·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나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통칭)의 개념을 2천5백년 전부터 실천해 온 불교야말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로 자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왜냐하면 승가의 삶 자체가 바로 제3섹터적 삶의 극단적 전형이자 '무소유' 삶의 표본이며, '이타적 삶'의 문명을 갈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보살도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문명창조를 위해 불교의 '무소유정신'이 보편적 사회원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불교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참여를 지양한 문화창조적 사회참여와 생명공양실천운동본부와 같은 제3섹터의 영역확장, 불교교리·문화에 대한 지식 정보화, 불교도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조직망 건설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송소장은 주장했다.

노부호 교수(서강대 경영학과)는 '21세기와 경영혁신:학습조직으로의 전환' 주제발표에서 미래에는 종교조직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치 못하면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한국불교의 비전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대명제 아래 승려들의 의식개혁, 종단과 사찰운영, 승려교육과 평가 등 광범위한 조직혁신을 통해 지식, 정보기술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불교는 양적인 세력확장이 아닌 종교 본연의 가치에 충실함으로써 힘을 얻는 질적 전환의 시기에 서 있는만큼 △중앙종단과 교구본·말사간의 행정체계 미흡 △비영리단체의 비효율적 운영 △승려의 자질부족 △사찰재정운영의 불합리 △정보기술의 낙후 등의 문제점 해결을 통해 비젼을 이끌 전략적 과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교수는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종정의 실질적 권한강화를 통한 정신적 지도자化 △복수추천 후 불교대표기구에서 최종 임명하는 총무원장 간선제 △종단운영평가를 위한 재가불자중심의 경영자문단 운영 △사찰간 TQM(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영우수 평가)경진대회 등을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한명우 기자

각종 수행관 집중조명
'청호불교논집' 1집 나와

원시불교의 사념처(四念處) 수행에서부터 화엄, 유가유식(瑜伽唯識), 천태, 밀교 등의 수행관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집이 나왔다.

불교사상연구 보급을 통해 우리의 정신문화 고취와 불교문화를 창달한다는 취지로 최근 (재)청호불교문화원(회장 이종대)이 펴낸 〈청호불교논집〉 제1집이 그것.

이번 논집에는 '원시불교의 사념처 수행에 대하여'(최봉수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아비달마 불교의 수행론'(권오민교수·경상대) '종교적 회심과정(回心過程)으로서의 반야공변증법(般若空辨證法)'(김용표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등 모두 8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백양사

사천왕문

靈山會上言雖普
(영산회상언수보)
小室峰前句未親
(소실봉전구미친)
瑞艸夢茸含月色
(서초몽용함월색)
寒松翁鬱出雲霄
(한송옹울출운소)

영산회상 부처님 하신 말씀 비록 많지만
달마대사 전한 뜻은 말 밖에 있네
우거진 상서로운 풀이 달빛을 머금으니
울창한 곧은 솔은 구름 밖에 솟구쳤네

해설 백양사는 최근 조계종의 총림으로 지정된 사찰이다. 조계종 제 18교구 본사이며 네번째 총림이 된 백양사는 백제 무왕 33년(632)에 여환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양사의 총림 이름은 고불총림이다. 총림이란 잘 알다시피 선원 율원 강원 염불원 등 전통 수행원이 골고루 갖춰진 곳을 의미하며 총림의 지도자를 방장(方丈)이라고 한다.

대부분 사찰의 사천왕문에는 사천왕의 위신력을 찬탄하는 내용의 주련이 걸린다. 그런데 백양사 사천왕문의 주련은 매우 선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첫 구절과 두번째 구절은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수많은 설법을 하였지만 달마는 한 마디의 말도 없이 오직 마음으로 그 뜻을 전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선종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목이기도 하다. 선종에서는 문자를 거부한다. 선의 세계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이다. 두번째 구절에서 소실은 달마대사가 9년간 면벽한 곳을 말한다. 달마가 전한 뜻이 말 밖에 있다는 것이 언어의 세계를 초월한 곳에서 진리를 전한 것을 의미한다면 세번째와 네번째 구절의 의미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서로운 풀더미에 달빛이 머금어진 모습이란 선의 경지에 이른 것을 매우 서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은 선의 경지에 들어가면 한마디 말이 없어도 영산회상의 모든 말씀이 잡초 속에 우뚝 솟은 울창한 소나무처럼 그 뜻이 마음에 와 닿는다는 의미로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의 운소는 하늘을 뜻한다.

〈안동 경안중 교사〉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佛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사명대사 '禪敎觀' 바탕 호국활동
불교민속 사회적 대동의식 지향

이봉춘교수 · 진철승씨

한국불교학회·역사민속학회 세미나

사명대사 유정스님의 호국활동은 선교관(禪敎觀)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불교민속신앙은 대동의식을 바탕으로한 인간다운 삶을 꾸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각각 제기됐다.

이봉춘교수(동국대)는 지난 11일 한국불교학회가 주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용맹을 떨쳤던 사명대사 유정스님의 호국활동은 선교관(禪敎觀)이 함께 바탕을 이루고 있었으며, 특히 對敵행위 때에는 神的 기미(機微)가 그대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유정의 수학(修學)은 선 우위적이면서도 선과 교를 병행했으나 결국 선중심적이었으며, 임제종풍과 종지를 천명하고 있는 유정의 호국행적이 보여준 강렬한 실천성과 스님이 대적행위에서 보여준 즉물대응적(卽物對應的) 현실성과 윤리성, 용맹과 결단성 등의 근본은 이와 같은 스님의 선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정의 교학사상은 법화·화엄·미타정토사상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특히 화엄의 무진법계연기사상이 교관의 핵심사상이라고 덧붙였다.

진철승씨(불교문화교육연구소 연수실장)는 지난 18일 한국역사민속학회 제43차 월례발표회에서 '민속과 불교신앙-세시풍속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불교와 밀접한 민속신앙을 소개하면서 이들 민속신앙은 사회적 대동의식을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을 꾸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현시대에도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불교와 민간의 세시풍속으로 사월 초파일과 칠월 백중, 팔관회, 정월의 풍속인 마을굿과 연말연시 절 입구의 서낭이나 장승 앞에서 행하는 원앙재나 성황제 등을 불교민속신앙으로 소개했다. 〈우〉

카오스이론 화엄사상과 일치

노벨상수상 프리고진박사 이대서 강연



◇일리야 프리고진 박사

현대 과학의 역할은 산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도시를 맑게 하는 것이며,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일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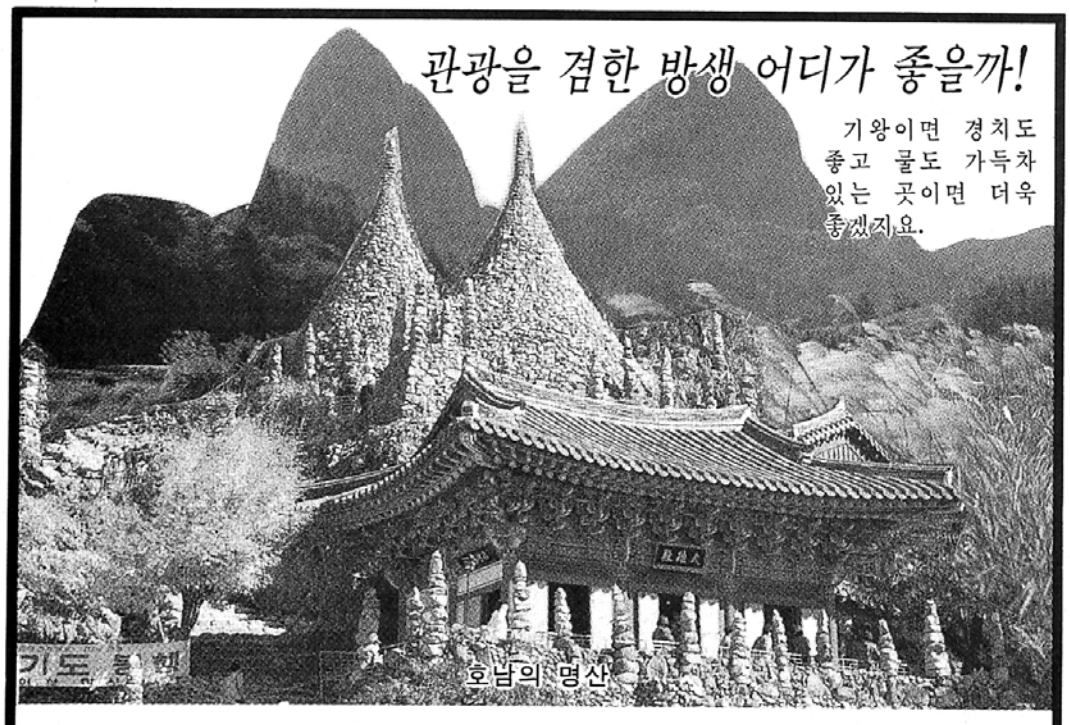
카오스(chaos, 混沌)이론의 창시자이자 77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과학자이자 사상가인 일리야 프리고진 박사는 지난 22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카오스: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초청강연회에서 현대 자연과학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결정론적(決定論的)이고 시간 가역적(可逆的)인 자연 법칙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개인과 사회 '조화' 강조한 '공존화합' 기본틀

카오스 이론이란 지금까지 받아들여져온 초기조건이 결정되면 미래예측이 가능하다는 결정론적 자연법칙과는 달리 초기조건의 차이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의 궤적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카오스 이론은 과학의 세계정복이 아닌 예측키 어려운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를 위한 공존과 화합에 그 기본틀을 두고 있다는 것이 프리고진 박사의 설명이다. 그렇기에 과학은 이 세계의 한 부분이며 세계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예측키 어려운 문명을 올바로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카오스 이론은 모든 것을 전체 속의 부분으로 보는 인식에서 출발한 불교의 화엄사상과 일치하는 특색을 지닌다. 개인과 사회가 서로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사상과 다를 바 없으며, 화엄불교는 이미 카오스 이론의 근본원리를 꿰뚫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프리고진 박사는 카오스 이론은 자연탐구의 결과로 인간이 神이 될 수 있다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론에 맞서 자연과 과학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 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 길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 (0655)33-2900,0303
32-0652,0072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등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및 상담 :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5동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 스님)
● 무실 :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 전화: (051)864-3740
본회: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음회
● 전화 :(0335)34-9490, 39-1906
마산/ (0342)706-3060

서울강남지회:(02)597-7581
서울강북지회:(02)747-7033
부산지회:(051)516-2713(지장정사)
대구지회:(053)323-2598
대전지회:(042)222-4936
광주지회:(062)228-8544
제주지회:(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0331)291-8549
경남진주산청지회:(0596)73-0039
경남마산지회:(0551)23-9016
경남울산지회:(0522)74-7536
창원지회:(0551)62-0076
제천단양지회:(0443)46-3023
의정부지회:(0351)873-0532
경주지회:(0561)772-3255

첫 연등축제 동대문운동장서 종각까지 화보

"깨침과 나눔의 세상 열자"





이웃을 위하여

경불련 산하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연등축제행렬에 참가해 세계 기아·질병·아동구제의 지비행을 홍보했다.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길

3만여 불자들이 손에손에 밝혀든 연등은 이땅을 부처님 세상으로 밝히려는 염원으로 동대문운동장에서 종각에 이르는 거리를 수놓았다. 연도에 나서 연등축제를 지켜본 2만여 시민들의 가슴에도 자비와 광명의 등불이 전해져 부처님오신 뜻을 함께 새겼다.



青龍 法門

부리부리한 눈, 높이 든 연등, 곧 승천할 것만같은 청룡이 말없이 들려주는 법문은 무엇일까.

국경없는 자비

북한수해동포를 위한 자비성금 모금현장에서 연등을 만들며 밝게 웃는 외국인들.



찬탄·합창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연합합창단의 장엄한 찬불가가 동대문운동장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봉축법요식이 봉행됐다.



青龍 法門

부리부리한 눈, 높이 든 연등, 곧 승천할 것만같은 청룡이 말없이 들려주는 법문은 무엇일까.



'월드컵' 기다리는 佛心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촛불로 타올랐다.



새 다짐의 회향법회

종각네거리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어린이 합창단의 찬불가를 들으며 불자들은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발원했다.

연등축제 이모저모

봉축풍선 4천여개 불티

○… 오후 4시부터 종로5가 보생약국 앞에서 실시된 '봉축풍선 나눠주기'는 시작하자마자 풍선을 달라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목동 법안정사(주지 효경) 청년회원 6명은 4천개의 풍선과 공기주입기 2대를 준비했으나 수요에 못맞춰 펌핑해면서도 즐거운 표정.

선교나선 '오직예수' 빈축

○… 동대문운동장을 출발한 2백여명의 네팔인 노동자불자들은 종각까지 제등행진을 하는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마스떼'를 외치며 손을 힘차게 흔들어 박수갈채를 받았다. 네팔인 불자들이 종로3가 단성사 앞을 지날무렵 '오직예수'라고 쓰여진 옷을 입은 30대중반의 남자가 제등행진을 하고 있는 네팔인 노동자에게 접근, 선교행위를 해 경찰의 저지를 받고 시민들에게 빈축을 사기도 했다.

축제스타는 동자승 6명

○… 봉축법요식과 제등행진에서 가장 인기를 모은 스타는 조계사어린이회의 '6명의 동자승들'. 모두 6살인 이 어린이들은 파르라니 삭발한 머리에 가사와 바랑까지 맨 귀여운 모습으로 많은 사진기자, 작가들의 집중 플래시세례를 받았다. 이들은 두 스님의 보호(?)아래 3Km의 먼 길을 끄떡않고 잘 걸어갔지만 간혹 다리가 아픈듯 스님 등에 업히기도 했다. 이들 귀여운 어린 스님들을 본 외국인들은 '진짜 스님이냐'고 눈이 동그래져 묻기도.

넘치는 자비 젊음도 함께

○… 종묘공원에서 19일 오후 4시부터 열린 BBS-FM 부처님오신날 특집 '온누리에 자비를' 공개방송에는 수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춘채, 패닉, UP, 엑시스, 전람회 등 신세대 가수들의 흥겨운 음악과 더불어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만끽했다.

종로통 곳곳에 외국인들

○… 이번 연등축제에는 어느해보다 외국인의 모습이 많인 눈에 띄었다. 외국인을 위한 인포메이션 박스에서 영문과 일문으로 된 행사안내지를 배포한 것도 한 몫.

특히 외국인은 외국인비구니스님을 만나자 반가워하며 대화하기도.

외국인안내소와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나온 무진스님 요광스님 태리스님 여용스님등 파란눈의 스님들은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기에 분주. 남아공에서 왔다는 앤더슨씨는 "한국방문은 처음이지만 연등을 만들고 의미를 설명들으니 새로운 경험이 됐다"고 즐거워했다.

에어툴 일주문 '아슬아슬'

○… 연등축제의 물결이 종로일대를 휩쓸고 있을 무렵 탑골공원 앞 네거리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청암항공 유체제작소가 제작한 에어툴(Air Tool) 일주문 장엄물이 초여름바람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 결국은 제모양을 찾지 못했던 것. 거리축제를 구경나온 이들은 이 모습에 어처구니없는 웃음을 짓기도.

설계상의 잘못과 사전준비의 미비로 진행요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에어툴 일주문 장엄물은 이번 연등축제의 옥의 티로 지적됐다.

현 대 불 교 신 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큰 대원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집 제1호 을
발간하였읍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등,
알찬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합본호 1집
현대불교신문 창간호
(94.10.15)
▶ 제59호(95.12.27)
■가 격
50,000원 (별송비 별도)
■구입신청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침구인 초보자 · 가족 건강을 위하여
척추교정, 지압, 교육(시술)안내
(CHIROPRACTIC)
• 교육(시술)내용
▶ 척추및 각 관절 교정법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불상오행 건강 지압법
장상수 건강연구원
업구장역 543-7306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 : 778-5345
팩스 : 777-1917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원해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팩스:(02)266-2679

佛事 (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수있는 "신비의 불탑 다라니" 책자를 스님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악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가 발산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靈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현재사업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方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運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등의 운세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있으며
② 영가의 빙의상태, 천녕薦寧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빙의및천녕薦寧과정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 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탈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령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피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본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도록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수 있고
⑤ 집이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뻗치도록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주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법당 1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마긴 (0342) 706-3060

신비의 신라 범종 개발
창업 8년의 역사로 범종구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무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聖鐘社 대표 元光 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바로 잡습니다.
지난주에 발행된 본지 봉축특집호(79호) 8면 증단축하 광고중 대한불교 화엄종 '종정 한귀하'를 '종정 한구하'로 바로 잡습니다.

확실한 부동산최고의 투자대상!
"동대문 시장內 전문도매상가"
본 회사는 대한민국 최고 상가인 아트프라자 도매상가를 성공시킨 노하우를 가지고 원단, 부자재 상가중 초일류 1등으로 동대문 삼우택스를 개발합니다.
안전성과 최대 수익성을 보장받는
6가지 핫-포인트!
★ 실투자금 : 3,500만정도 ★
★ 도매상가는 오픈시위치, 등급에 따라 권리금이 상당히 차이납니다.
1. 각종세금이 면제되는 장점
2. 최저의 대출고율 수단 (지하철 · 6호선 동묘역)환승 본 건물 지척 번화지 역세권)
3. 40년만에 최초 독점 개발시스템 (최첨단 불투시설로 원가 경비절감 효과)
4. 어떠한 부동산 보다 단기의 최고 수익율 (최초투자액의 20배수익 3-5년 기점 형성)
5. 분양가 상당히 저렴 (주변 분양상가보다 약50% 저렴)
6. 완벽한 주차장 구비 (1500대 동시주차)

투자성공 극대요건
■ 정부투자기관 시행 분양, 임대 등 사후관리 철저 안전성 확보
■ 벽산건설 책임시공 및 공사지체 보상금 제도실시
■ 365日 TV 융단홍보 및 이벤트 행사
■ 조기상권 활성위해 유통사업본부 가동 (현재)
■ 1개 점포 → 주변 점포의 3-4배 평수
※ 점포당 : 8,500만원
(융자 3,000만원, 무담보, 무보증, 중도금 대체가능)
※ 1년후 투지금액 이상의 임대료나 월세 수익예상



상담 · 분의
전화 : 02-264-2512
개발사업본부 : 과장 최 경 란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60〉

戒互用之罪 (계호용지죄) ②

智大驚曰 公居此山 院宇一新
지대경왈 공거차산 원우일신
道風遐播
도풍원파

지선사 크게 놀라 이르기를 그대가 이 산에 머물적에 절을 일신(중창불사)하고 도풍이 멀리까지 퍼져

意期四禪 不足處之 云何若是
의비사선 부족처지 운하약시
曰我 修道二十年
왈아 수도이십년

뜻으로는 사선(색계의 네하늘(모두 18천)에 나게되는 힘을 가진 선정)이 아니면 족히 처하지 않을 것이어늘 어찌하여 이와같은가.
수옹이 가로되, 저는 20년간 수도하면서

不互用化士供僧之物
불호용화사공승지물
後造僧堂 互用僧供 猶未塡說
후조승당 호용승공 유미진설
화주의 삼보공양물을 서로 어긋 쓰지 않았더니 뒤에 승당을 지음에 삼보공양물을 어긋 나누어 쓰고 아직도 채워놓지 못하여

受苦至此
수고지차

即爲塡說 無何 至死
즉위진설 무하 지사
嘗以破簏 盛檀越名目
상이파롱 성단월명목
置車司過閣上
치고사압각상

곧 베풀고자하는 뜻을 일렀으나 얼마 안되어 죽게 된지라 못하였는데
일찍이 깨진 바구니에 보시주 명목을 적어서 창고 다락 어두운 곳에 두었으니

今幸存焉
금행존언
翌日 集衆 詣車司 覈目 果在
익일 집중 예고사 장목 과재
唱賣衣鉢及僧堂
창매의발급승당

다행히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날 대중을 모으고 창고에 들어가니 장목이 과연 있었다.
의발과 승당을 팔아

遂爲塡說 五年及足
수위진설 오년급족
後夢 顯來謝
후몽 옹 래사
賴師之力 幸免獄苦
뢰사지력 행면옥고
퇴사지력 행면옥고

드디어 대중에게 베푸니 5년에 마쳤다.

"삼보공양물을 어긋나게 나눠쓴 고통 대중공양 원만할때 면할 수 있습니다"

智曰何方使 可免
지왈작하방편 가면
顯曰望以慈悲 回賣僧堂
옹왈망이자비 회매승당

(이렇게) 고통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지선사 이르되, 무슨 방편을 지어야 그통을 면할 수 있는가 하였다.
수옹이 이르되, 바라옵건대 자비로써 승당을 되팔아

塡還衆供
진원중공
智曰淺久之事 以何爲憑
지왈천구지사 이하위빙
曰當時 意謂修造畢功
왈당시 의위수조필공
대중공양을 원만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였다.
지선사 가로되 아주 오래된 일인데 무엇으로써 증빙 할 것인가.
수옹이 이르되, 당시에 승당을 지어마치고

得生人中 三生後 復爲僧
득생인중 삼생후 부위승
以此覈之 用僧供物
이차관지 용승공물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났으니 삼년후에 다시 중이 될것입니다 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삼보공양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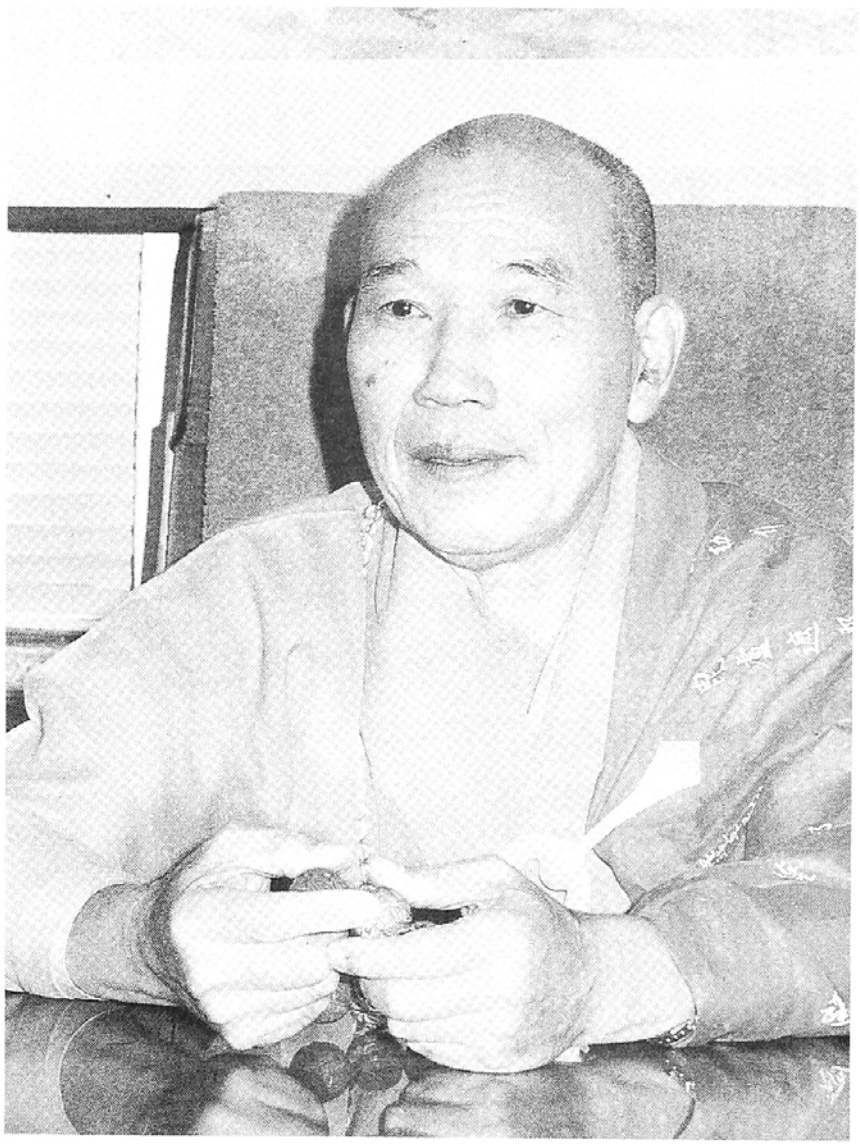
造僧房屋
조승방옥
願還不及 尙受此報
원환불급 상수차보
當今覆無因果者 互用財利
당금발무인과자 호용재리
승방짓는데 쓰고
반환키로 원했다가 이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도 오히려 이런 과보를 받거늘
오늘날 인과는 없다고 하는사람이 있고 재물을 서로 어긋쓰고 **龍眼**

그후 꿈에 수옹이 나타나 감사하기를 선사의 힘에 의지해 다행히 지옥고를 면하고

★ 지상법석

"탐욕은 모든 악의 근원

일화스님 〈법륜종 종정〉



약력
- 27년 충남 공주 生
- 40년 마곡사에서 금담스님 은사로 득도
- 45년 마곡사 대교과 졸업
- 49년 대전 공립공업 중 교사
- 88년 법륜종 창종, 총무원장
- 91년 법륜종 종정 취임

보라,
모든 것은 지금 이글이글 타고있다.
눈(眼)이 타고 있다. 눈에 비치는 현상들이 타고있다.
그 현상을 인식하는 생각도 타고있다.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타고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인해 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 노여움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인해서
모두 이글이글 타고 있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을 바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리라.
애착이 없어지면 그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최고의 안락을 누릴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탐욕은 모든 악의 근원이고 번뇌와 망상의 씨앗임을 일깨우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욕망의 절제, 이것이야말로 수행하는 스님들뿐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어려운 숙

"우리는 제동장치 없는 차를 타고 있습니다 위험을 알고 극복하려면 집착·번뇌 벗으려는 원력을 세워 합니다"

제가 아닐런지요. 어딘지도 모를 곳에서 들끓어 오르는 욕망이란 이름의 그 무엇이 오늘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욕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지 하는 것,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기어이 하고야 말게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욕망이 부리는 조화가 아닐까 싶은데 욕망이란 놈의 본래 모습은 알 길이 없군요.
욕망은 탐욕이 부르는 허상의 모습입니다. 뚜렷한 목적이나 분명한 이유도 없이 그저 탐내는 마음이 욕망인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타오르고 있는 불구덩이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노여움과 어리석음이 덩달아 춤을 추어대니 이 세상은 참으로 한심지경입니다.
제동장치도 없이 내달리는 전동차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위험천만합니다. 탐욕의 세상은 이와같이 우리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천만의 전동차에 올라탄 중생이지만 언제나 튼튼하고 안전한 전동차를 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욕망의 전동차 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헛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탄 전동차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것을 벗어날 토대를 만든 것이지만 그 자체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계속 타고 간다는 것이니까요. 그러고 보니 욕망보다 더 무서운 놈이 헛된 것에 대한 믿음이군요.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허상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게 믿으려 하지않고 그것이 허상인 줄도 모르는 어리석음까지도 믿음을 삼는 것이 무명 중생의 한계일 것입니다.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라고 우겨대는 것과 다를것이 없겠습니다.
허상의 믿음에 대한 집착은 어리석은 삶의 연속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불자들도 무상(無常)을 늘 얘기 하면서도 집착해서 안될 것에까지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이란 단순히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본질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계의 모든 것은 변화해 갑니다. 나고 성하고 멸하는 것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것이 이대로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이 무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어리석음이거든요. 우리는 이 현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도 내가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무상의 노정에 서 있는 것이란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게 되고 그 집착과 분별심으로 인해 우리는 탐욕의 마음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일지라도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어떤 인연에 의하여 나와 잠시 만난 것일뿐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영원한 나의 소유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헤어져야 합니다. 나와의

신개발품 전통사찰 지붕의 美를 되살린 가람 銅기와

귀의 삼보하옵고
손끝에 물들은 분홍빛 연잎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이 목전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국민적 축제 행사에 여념없으신 사부대중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가람동기와에서는 다년간의 기술 개발로 품격을 향상시키고 전통사찰지붕의 美를 되살린 가람동기와 신개발품을 생산하여 시공, A/S를 책임지고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 제위의 관심있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불기 2540년 5월
가람동기와 대표 이주영 합장

가람 동기와의 장점 및 특성
1. 반 영구적인 기와입니다
—겨울철 눈과 한파로 인한 동파가 발생하지 않고 풍우로 인한 흙의 흘러내림 (지붕의 이물질, 잡초의 뿌리, 이끼등)으로 인한 지붕의 변형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완벽한 방수가 가능합니다.
—암기와 숫기와는 비, 바람, 물의 역류를 막을수 있게 설계 제작되어 누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물의 목재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3. 운반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평당 기와의 중량이 45kg으로 가볍고 암기와 숫기와는 30장씩(1평당 소요량) BOX로 포장되어 운반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4. 동기와의 색상변화
—동기와는 다른 금속에서 볼수 없는 특유의 색상변화를 일으켜 최초의 색상은 적등색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색창연한 멋을 더해주게 됩니다.
5. 시공이 간편합니다.
—내수 합판을 사용하여 지붕에 덧집을 짓고 아스팔트 펠트(25kg이상)를 깔은후 동기와를 조립하여 시공하며 신축의 경우 서까래위에 송판(이다)을 깔은후 단열재를 이용하여 단열을 한후 내수합판으로 덧집을 짓고 동기와를 조립 시공한다.

가람 동기와 설계. 제작. 시공단계
동기와제작 → 시공설계 → 직접시공 → 시공감리 → 하자보수및 10년간 A/S
가람동기와에서 전부분 공정을 대리점 하청없이 제작, 설계, 시공을 본사가 직접하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감소합니다.
동기와불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02)720-512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하여 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4-40 청송B/D 202호
가람동기와 ☎ (02) 720 - 5121

지상법석 ★

절제할 때 안락얻어”

“물질적인 집착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인성을 황량하게 만들 뿐입니다”

인연이 다하면 여지없이 나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고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상의 도리로 봅시다. 나도 무상한 하나의 중생에 불과하고 지금 내가 가진 물건도 무상한 물건 하나일 뿐인데 소유한다거나 소유된다는 믿음은 얼마나 가소로운 것입니까. 그러니 집착하고 탐하는 마음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나와 인연이 있어 만남을 이룬 것일 뿐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때 우리는 탐욕도 집착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잘 살고 있다는 믿음이 산업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만 누가 이 풍요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오늘의 풍요가 반드시 내일의 풍요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해서 내생이 행복해 질것이라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소유의 한계는 너무나 얕은 것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한 곳에서 영원히 있을 수 없으니 물질적인 집착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인성을 황량하게 만들 뿐입니다.

헛된것에 대한 믿음을 바꿔서 진리에 대한 믿음을 쌓고 탐욕의 마음을 없애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깨달음을 이룬자의 열반락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무상의 도리를 잘 알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전동차가 제동장치도 없이 마구 달리고 있다는 위험성을 깨닫기 위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은 불타는 욕망을 버리고 스스로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원력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하는 불자로서의 바른 삶을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밝혀 놓으신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것이 없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소탈하게 할 것이고 지금의 행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은 우리를 겸허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도 무상의 도리를 알고 나면 겸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삶의 과정에서 실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나 글로는 다 이해하고 수긍을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백가지를 알고 실천 못하는 것보다 값진 일인데 우리는 늘 실천의 문제에서 자신을 잃고 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병은 그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약방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의 문제에서 자신감을 못 갖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이유도 앞에서 말한 욕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낮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못하면 계속되는 고통의 삶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과정과정이 모두 수행의 과정입니다. 내가 제일이라는 아만심을 버리고 나로인해 이 세상이 있다는 편견을 버리며 사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인연되어 만난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인연 맺은 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란 착각을 버리면 됩니다. 나의 소유물도 남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니 주인행세에 너무 마음쓸 일도 없습니다. 요즘같은 물질만능 시대를 잘 사는 방법도 ‘내것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겸허하게 모든 대상을 인식하는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것과 네것을 구별해 다투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롯이 나를 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 극락을 가꾸는 세상인 겁니다.

탐심을 버리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삶의 자세를 위한 또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귀의(歸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귀의란 그대로 돌아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돌아가 무엇에 의지하란 말입니까. 허상을 보고 허상을 쫓아 사는 나의 망념에서 돌아가 부처님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자기화시키는 승가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때때로 부처님께로 돌아가 그 위대한 가르침에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중생계는 빛나는 불국토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국토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허한 삶의 자세로 돌아가 의지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우리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삼보는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주머니 속 소유물마저도 진정한 내것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상의 도리 알아내는 것이 수행

“나의 것이 없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소탈하게 하고
현재 행복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믿을때 우리는 겸허하게 됩니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오늘의 풍요가 반드시 내일의 풍요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해서 내생이 행복해 질것이라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소유의 한계는 너무나 얕은 것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한 곳에서 영원히 있을 수 없으니 물질적인 집착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인성을 황량하게 만들 뿐입니다.

헛된것에 대한 믿음을 바꿔서 진리에 대한 믿음을 쌓고 탐욕의 마음을 없애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깨달음을 이룬자의 열반락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무상의 도리를 잘 알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전동차가 제동장치도 없이 마구 달리고 있다는 위험성을 깨닫기 위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은 불타는 욕망을 버리고 스스로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원력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하는 불자로서의 바른 삶을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밝혀 놓으신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것이 없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소탈하게 할 것이고 지금의 행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은 우리를 겸허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도 무상의 도리를 알고 나면 겸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삶의 과정에서 실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나 글로는 다 이해하고 수긍을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백가지를 알고 실천 못하는 것보다 값진 일인데 우리는 늘 실천의 문제에서 자신을 잃고 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병은 그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약방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의 문제에서 자신감을 못 갖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이유도 앞에서 말한 욕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낮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못하면 계속되는 고통의 삶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과정과정이 모두 수행의 과정입니다. 내가 제일이라는 아만심을 버리고 나로인해 이 세상이 있다는 편견을 버리며 사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인연되어 만난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인연 맺은 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란 착각을 버리면 됩니다. 나의 소유물도 남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니 주인행세에 너무 마음쓸 일도 없습니다. 요즘같은 물질만능 시대를 잘 사는 방법도 ‘내것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겸허하게 모든 대상을 인식하는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것과 네것을 구별해 다투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롯이 나를 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 극락을 가꾸는 세상인 겁니다.

탐심을 버리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삶의 자세를 위한 또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귀의(歸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귀의란 그대로 돌아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돌아가 무엇에 의지하란 말입니까. 허상을 보고 허상을 쫓아 사는 나의 망념에서 돌아가 부처님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자기화시키는 승가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때때로 부처님께로 돌아가 그 위대한 가르침에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중생계는 빛나는 불국토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국토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허한 삶의 자세로 돌아가 의지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우리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삼보는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71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⑧

색즉시공은 실상표현…만물 상호작용

전체가 하나 이루며 제각각 역할 달라

적극적 의미의 空

입자와 입자 사이에 힘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을 물리학자들은 수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화인만 그래프(Feynman Graph)라는 그림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물리적 진공을 이루는 가상입자들과 우리의 경험세계에서 보는 입자들 모두가 또다른 가상입자들로 연결되어 색(色)이나 공(空)이나 구별없이 전체가 하나를 이룬다. 가상입자들이라 해서 보이는 입자와 다른 것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기에 그렇게 부를 뿐 보이는 입자나 보이지 않는 입자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 이 물질세계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겠는데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환상이요 꿈이라는 뜻으로 이말을 해석한다. 색즉시공은 결코 그런 허무적인 뜻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전체가 하나를 이룬다는 뜻이다. 바로 연기설을 뜻한다.

진공이나 소립자를 떠나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만 생각하더라도 책상이 여기에 있고 벽이 저기에 있어 딱딱한 무엇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책상이나 벽을 이루는 물질의 입자들과 우리 몸의 입자들이 전자기적(電磁氣的)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몸이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는 중성미자(中性微子, meutrino)라는 입자로 되어 있다면 우리 몸은 만리장성이라도 텅빈 공간처럼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리장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와 태양사이를 납으로 채워 놓더라도 우리몸은 텅빈 공간을 통과하듯 그것을 뚫고 나갈 것이다. 물론 중성미자도 약력(weak interaction)과 중력(重力)을 통해 다른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니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색즉시공은 환경보호를 뜻하기도 한다.

바다에 사는 산호는 값싼 보석으로나 소용될까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큰 관계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알고보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공기중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구상에 원시생물들만 살던 수십억년전의 지구 대기중에는 탄산가스가 너무 많아 고등생물이 살 수 없었다. 이 지상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여 사람이 살수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산호다. 공기 중의 탄산가스와 바다속의 칼슘을 결합하여 석회석을 만든 것이 바로 산호고 이 석회석은 시멘트의 원료이니 산호와 사람의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산호뿐 아니라 독사나 지네 거미 파리는 물론 박테리아 마저도 다 저마다 맡은 바 역할이 있어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색즉시공은 이것을 가리키는 적극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 모든 것이 꿈에 불과한 허무적인 뜻으로 색즉시공을 해석하기도 한다. 전체를 하나로 꿰뚫어 보는 반야지가 없으니 그런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는 없으나 분별지로써도 물리학은 전체가 하나임을 설명할 수 있으니 색즉시공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당부하고자 한다.

달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가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연기설을 주장하느냐고 누군가가 불교를 공격했지만 이것은 머리털이 하나 빠진다고해서 무슨 큰일이냐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씩 둘씩 빠지면 분명히 대머리가 되니 머리세포를 건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물(微物)이건 무생물이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어찌 함부로 생명있는 것을 죽일 수 있겠으며 생명없는 것이라고 해서 어찌 함부로 파괴할 수 있겠는가? 불교적 윤리의 핵심을 이루는 자비 보시는 바로 전체가 더불어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색즉시공의 공사상(空思想)을 깨달으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공(空), 이것은 모든 것의 실상을 표현하는 말이며 적극적인 윤리를 가르치는 말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3가 7/4 458
● 전화 : 238-3285

사단법인 성 양 원
원장 석 정 혜
성양원후원회원 일동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산 17-1
● 전화 : 0591-44-2181
● 팩스 : 0591-44-2180

대한불교조계종 포항 대성사
주지 송 학
대중 일동
● 포항시 용흥동 534번지
● 전화 : 0562-47-7563

증심사
주지 영 조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 전화 :062-226-0107

원효사
주지 현 지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 전화 : 062-262-0321

18교구본사 백양사 포교당
관 음 사
◆호남불교대학
보문유치원
관음문화원
신도회일동
주지 도 성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4가 54-1
● 전화 : 223-7666, 224-3335

덕명사
주지 무 등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1동 238-33
● 전화 : 062-365-0367

선덕사
선덕사 유치원
주지 행 법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3동 572-1
● 전화 : 062-263-4660, 264-8024

봉 축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세심정사
주지 지 암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58
● 전화 : 062-222-9442

법림사
신도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
● 전화 : 062-234-2207

신광사
주지 경 주
신도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1동 193
● 전화 : 062-261-1529

불갑사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 전화 :0686-52-8097

용흥사
주지 원 실
●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 전화 : 0684-82-0574

군산 흥천사
신도 일동
● 전북 군산시 금동 2-17
● 전화 :0654-445-3769

쌍봉사
주지 관 해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741
● 전화 : 0612-72-3765

광주불교능인회
· 광주불교 능인회 새마을금고
· 사단법인 광주불교 능인문화원
· 능인회 상조회
회장 김두원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480-7
● 전화 : 062-226-5161~4

고은 불교대하소설

섬 지키기



무욕도는 더이상 천년만년의 무욕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제법무아(諸法無我)를 아무런 너스레도 없이 말하고 있지 않는가



79

섬에 혼자남은 우녀는 파도에 몸을 던져 다른세상을 예험하고…

두번째의 그다지 격렬하지 않은 진도(震度)일지언정 사람과 건물이 떨만한 지진을 겪은 두사람이야말로 새삼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곳이 지진으로 하여금 가장 의지할 수 없는 곳임을 깨닫게 된 것도 그렇겠다. 무욕도는 더이상 천년 만년의 무욕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제법무아(諸法無我)를 아무런 너스레도 없이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무욕도에서 사는 너와 나라는 자아(自我)역시 얼마나 하찮 것이 없어질 수 있는 무아(無我) 그 자체의 징표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이나 만상(萬象)의 어느 것 하나도 덧없는 바를 이겨낼 수 없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이치일 따름이다.

그런 나머지 의미있는 것에 대한 무의미가 참다운 의미로 되는 선가(禪家)의 작풍이 힘을 떨치게 된다. "달라붙은 것을 풀고 결박을 없애며 못을 뽑고 문설주를 뽑아버려라"라는 불호령도 거기에 있어야 하였다.

인담은 두번째 지진 뒤로 그동안 밀린 일에 손을 댔다. 우선 얼마전 충청도 덕숭산과 가야산을 거쳐서 이곳 무욕도의 소문을 듣고 건너온 정혜사의 화주승(化主僧) 한 사람이 봉이 커서 불교에 관한 것도 아닌 서하문집을 한정판으로 간행하겠다는 뜻을 얘기 끝에 냈거니와 그 문집을 인담이 다시 편찬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그 문집 속의 시문(詩文) 들이야 빈 창자 속에 마신 술이 번져가듯이 뜨르르 퍼고 있는 터여서 그것을 인담의 안목으로 다시 편찬하는 일은 퍽 어려운 노릇이 아니었다.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일단 물에 건너가야 하였다. 그 문집을 편찬한 필사본을 가야산에 머물고 있는 화주승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우녀님 나와 육지에 건너가지 않겠오? 이 문집을 넘기는 일도 겸해서 내가 볼가볼 다녀와야 하겠기에."

"그럴까요."

"함께 건너갑시다."

"인담화상. 설마 당신은 이곳을 아주 하직하자는 말은 아닐 터이지요?"

"무슨 뜻이오?"

"그른 아니라… 이 섬에서 비구와 비구니 두 사람이 사는 일도 인근 해안에서야 입방아를 찧을만한 것인데 그 비구와 비구니가 도타운 정분이라도 자랑하려고 들의 여기저기를 떠돌자는 말이오?"

"그럼 어찌한단 말이오?"

"인담화상. 당신 혼자 건너갔다 오시구려. 나는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마치 행상(行商)에 나선 지아비를 기다리는 아낙인듯이… 호호호."

이렇게 인담의 동행 제의가 거부된 뒤 사흘동안 인담은 그가 정리한 필사본을 다시 훑어보는 일에 몰두하였다. 먹이 떨어져서 먹 대신 숯물에 붓을 적셔 쓴 뒷부분이 아무래도 불안하였다.

그는 그 필사본을 기름 먹인 종이로 겹겹으로 싸서 품에 넣고 때때를 저어나갔다. 썰물이 밀물로 바뀌는 저녁 무렵이었다.

섬에 남기로 한 우녀가 인담의 때때를 바위꼭대기에 올라서서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우녀는 썰물밀물의 까닭을 몰랐다.

하지만 이씨조선 중기의 중대없는 사대부들에 의하면 조선의 서해는 중화(中華)와 가깝기 때문에 썰물밀물이 일고 동해는 중화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썰물밀물이 없다는 괴이한 중화에의 사대(事大)를 말한 것은 언젠가 무욕도선원이 한참 대중이 많을 때의 불이가 우녀에게 알려준 적이 있었다.

"사대라는 것들이 썰물밀물까지도 되놈을 섬기는 것으로 풀이하다니… 인담도 지진이 겁나 슬쩍 몸을 피해보자는 속셈인지…"

이런 불평에는 일정한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도 어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마음 그대로인 사실에 대한 혐오가 스며있다. 그것은 그들이 혀를 내둘러 설왕설래하는 그럴듯한 거량(擧揚)들이란것 헛수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도 덧붙여지고 있는지 모른다.

"하기야 불이수좌도 말한 적이 있었지. 3교 9류—전한시대 9학파, 유가·도가·음양가·법가·명가·묵가·종횡가·잡가·농가—나 제자 백가들도 입만 열면 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 그 놈의 도가 다만 이런 지경이라면 그 어느 놈이 그것을 참으로 증득하였다 하리… 멀리 옛 되놈들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양반이라는 것들의 저고리 소매 길이 따위나 따지는 예송(禮訟)사건의 당쟁놀이도 한심할 일이라 하였지… 참… 지금쯤 불이수좌는 어느 세상에 납시고 있는지…"

우녀조차도 이미 서하 임춘에 관한 내력에 익숙한 형편이다. 그것은 인담의 열렬한 관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임춘의 후신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는 우녀 자신으로 하여금 한때 불이와의 거침없는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임춘에 대한 임춘의 후신으로서의 비약적인 단면을 발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임춘이 아주 무색계(無色界)에나 노닐만한 때에 난데없이 지상에 잘못 태어나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고 궁핍 가운데 산 것을 마치 그 당시 고려의 무신(武臣)시대 때문이라고 말하는 인담에 대해서 불이는 "서하는 그저 거지 아닙니까!"라는 한마디로 끝냈다.

그때의 불이를 우녀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인담이 탄 때때가 밀물의 힘을 빌어 멀어져 간 뒤 섬에 혼자 남은 우녀는 그 자신으로 돌아왔다.

"저런! 인담화상을 두고 시비를 걸 것이 아니로다. 이내 신세야말로 개탄꺼리의 주인공이 아니더냐… 그런 인담 때문에 불이나 생각하는 따위의 잣이 나란 말이냐. 아아 두 숫컷 짐승한테 실컷 암컷노릇이나 해줄걸…"

우녀는 섬 하나가 이렇게 큰 세상인 줄을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기껏해서 함께 자고 케이는 인담 한 사람이 떠나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안착이 없어진 상태가 되다니!

그녀는 부엌 크게 들리는 파도소리에도 귀가 기울여졌다. 여느 때라면 하도 들어서 파도소리 따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루하루였는데 오늘따라 인담이 없는 이곳이 야말로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파도소리가 4방팔면에서 우레가 진동하듯 벼락이 치듯 호호탕탕하게 들려 도무지 앞뒤를 꽉 채우는 그 우렁찬 상응(相應)의 확대야말로 우녀에게 뜻밖의 사건이 되고 있었다.

"무 짐승이 아니라 이 파도더미에 내가 몸을 바쳐야 할 일이로다."

그녀는 그 자신의 의지보다 한발 앞서 이미 몸을 물에 던졌다. 풍덩! 소리따위가 있을 리 없었다.

밀물의 그 풍요한 위세는 한 여자의 몸 따위는 곧장 파도더미 위에 띄워 올렸다 내렸다 하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우녀는 헤엄칠 수 있었다. 아니 파도에 내맡긴 채 파도더미를 타고 떠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녀의 몸 안에는 의식이 불명이었다. 그런 한동안이야말로 그가 짠물이라도 들이키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바라는 몽롱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그런 시간 속에서 그녀는 다른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녀 자신의 어떤 사건을 예험(豫驗)하고 있었다. 그 세상에서 그녀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 남자가 한 무덤 옆에서 살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우뢰소리가 나고 비바람이 친 뒤 무덤 속에서 그 남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무시무시하지 않고 은근하기까지 하였다.

남자는 도리어 그런 은근짜가 더 소름끼치는 공포를 일으켜서 부들부들 몸을 떨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밤을 밝힌 뒤 남자는 무덤 너머에 사는 다른 남자에게 달려갔다. 그는 달래해서 표범과 싸워 그 표범의 가죽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무덤 속에서 어떤 말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듣고 무덤 옆의 남자네 움막으로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어디 기다려보자."

과연 다음날 밤중에도 어젯밤처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대기하고 있던 그가 무덤으로 가서 "그대는 누구이길래 사람을 부르는가"라고 용감하게 외쳤다.

그랬더니 무덤 속에서 대답이 나왔다.

"나는 땅속에 숨겨진 보물이다. 나는 어젯밤에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나를 몽땅 주려고 했는데 그는 겁을 먹고 오지 않았다. 그대는 나를 가져갈 수 있다. 내일 아침 7명의 따르는 자와 함께 너의 집으로 가겠다."

그는 그의 가난한 집으로 돌아갔다.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표범가죽을 꺼내어 걸어 뒤 그 자신도 오랫만에 목욕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침이었다. 한 사람이 일곱사람을 대동하고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다 출가승들이었다. 방으로 안내하여 맑은 물과 죽을 공양하였다. 그랬더니 여덟사람은 각각 커다란 금덩어리로 변하였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랫마을의 욕심장이가 그도 여덟사람의 수행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집에 온 사람들은 바로 황금칠을 한 흙덩어리였던 것이다.

또한 처음에 무덤속의 소리를 듣고 공포에 떨던 남자는 금덩어리 소식을 듣고 그 금덩어리들을 그의 보물이라고 주장하자 담대한 남자의 금덩어리 한아리 속에 뱀이 가득차 있었다.

우녀는 이런 예험에서 깨어나는 순간 과도자락에 의해서 짠물을 먹게되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섬 가까이 있는 암초를 손으로 붙잡을 수 있었다. 손은 암초의 한 부분에 다쳐서 피가 났다.

그렇게 암초에 의지하고 있다가 그 암초가 들들들 떨리는 것을 감지하였다.

그녀는 힘껏 헤엄쳐서 섬에 올라올 수 있었다.

"지진이란 늘 있는 일일 뿐이로다"라고 그녀다운 넉넉한 광상심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본즉 섬도 조금 떨어졌다.

"인담화상이 화주승을 만나려면 며칠은 더 걸리겠지. 돌아오기에도 며칠은 더 걸리겠지… 인담이 금덩어리 보배의 임자인 모양인가. 그렇다면 내가 뱀 한아리나 말을 터이지."

미래와 오늘이 뒤엉켜 있는 우녀의 마음은 서글퍼다. 갈아입은 옷도 서글픈 느낌이 들었다.

그림 · 조향숙

봉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축

사단법인 한국불교화원
총재 : 이 외 윤
부총재 : 김병회
이사장 직무대행 : 이원산(용천사)
교화원장 : 정창교(도림사)
포교사회장 : 백운월(불교여래원)
세계 불교사 사장 : 이정숙(법화홍통원)
통신대학 원장 : 한정섭(상락항 수도원)
이사 : 안경우(안양원)
이사 : 배창윤(송암사)
이사 : 이상하(수월사)
이사 : 배정길(청소년 독서실)
이사 : 권세철
이사 : 주명식
이사 : 김차례
이사 : 양승희
이사 : 김익순
감사 : 이정명(유마정사)
감사 : 허기덕

동성한약방
대표 최 춘 길
▶주소 : 대구 광역시 중구 동성로 3가 47번지
▶전화 : 053-252-6411 255-2769

이생 약국
대표 안 종 석
▶주소 : 대구 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동서상가 1층 1호
▶전화 : 053-634-5776

악사여래도량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사부대중 일동
●주소 경북 경산시 화촌면 대한리 587
●전화 053-851-1869

칠보사
조실 : 강 석 주
주지 : 김 동 호
사부대중 일동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전화 02-732-1424

범종사
대표 정 순 복
●주소 종로구 견지 55-2
●전화 02-735-1045
●공장 0333-683- 2672

부산불교운전기사회
회 장 : 백 봉 도
상임부회장 : 고 영 호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초량동 1204-7 혜정빌딩 7층
●전화 464-2020

대한불교 조계종 문수사
주지 최 지 원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1-3
●전화 624-3754, 623-3648

보국 윤활유 상사
대표 김 억 이
●주소 대구시 북구 칠성 2가 152-179
●전화 053-356-7750~1

"복지·청소년·교화불사 두마음 모았지요"

법 현 스님(태고종 총무부장) **법 현 스님**(쌍계사 주지)

BBS-대부도 전화인터뷰 인연

자문 구하며 각별한 정 나눠

동명이인(同名異人)이 많은 세상. 출세간의 수행 행로에도 동명이인의 특별한 만남이 있다.

태고종 총무부장 법현(法賢·39)스님과 대부도 쌍계사 주지 법현(法賢·48)스님은 나이나 은사 소속종단도 다르다. 한글로 법명이 같을 뿐. 그러나 두 스님은 각별한 인연을 함께 쌓아가는 도반이다.

두 스님은 전화를 통해 처음 만났다. 작년 가을 불교방송의 심야프로 '살며 생각하며'를 진행하던 서울 법현스님이 프로그램진행과 관련 대부도 법현스님과 아주 기억에 남을 전화 인터뷰를 한것이다. 대부도 법현스님은 당시 동지소년의 집을 개원한 직후였다. 한 청취자와의 상담 내용이 오갈데 없는 고아 20여명을 절에서 기르던 스님이 아이들의 집을 지은 이야기와 그곳 아이들에게 많은 불자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마침 담당 PD가 대부도와 전화 연결이 돼 있다는 사인을 보냈다. 인연이 닿을래서인지 그날 진행자 법현스님과 상담자 그리고 대부도 법현스님은 전화를 통해 나누며 사는 삶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후 12월에 두 스님은 다시 전화로 재회했다. 아침프로 '불국토의 아침'으로 옮겨 진행하던 서울 법현스님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부도의 아침을 노크 했던 것. 대면은 없었으나 두 스님은 매우 친밀감을 느꼈다. 얼마후 서울의 법현스님은 성도절을 맞아 창신동 원각사 신도와 어린이 50여명을 인솔해 대부도로 갔다. 비로소 두 스님 상봉을 하게 된 것인데 첫 눈에 전화상의 친밀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복지사업과 청소년 교화사업에 대한 두 스님의 의견이 같을 뿐 아니라 앞으로 수행 삼아야 할 과제까지도 닮아 있음을 확인한 두 스님은 10년의 나이차이보다 훨씬 두터운 도반의 정을 갖게 됐다.

요즘 두 스님은 자주 만난다. 하루 걸러 한번쯤은 전화통화를 한다. 대부도 법현스님이 소년범들을 수용, 사회교화교육을 시키는 수탁기관의 운영을 정부로 부터 인가 받고 동지소년의 집을 넓히는불사에 분주하기 때문이다. "행정적 경험이나 불사추진에 경험이 적다보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럴때마다 서울로 전화를 해 법현 스님께 자문을 구하죠." 대부도 법현스님은 서울 법현스님에게 일을 배울뿐 아니라 수탁기관의 운영 프로그램등에 대한 자문도 계속할 생각이다. 속가 나이로 아홉살 아래인 서울의 법현스님은 "청정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스님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즐겁다"며 두 스님은 법명이 같은 인연 보다 훨씬 커다란 도반의 인연을 가꿔갈 것이라고 전했다.

임연태 기자



◇대부도 법현스님(사진 왼쪽)과 서울 법현스님은 복지·청소년교화사업등에 주력하는 일도 닮았다.

우리는 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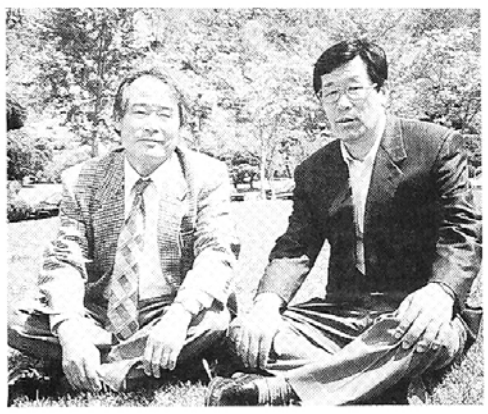
만남은 아름다운 일이다. 만남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한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얘기는 수행현장에서나 신행정진의 현장에서나 아름다운 것이다. 법명과 수행방편이 같은 두 스님의 얘기와 신행과 교화사업에 마음을 모아 일생을 함께하는 재가불자의 얘기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들어본다. 〈편집자 주〉

41년 두터운 인연 환경·장학사업 한뜻

홍순만씨(마산불교청년회후원회장) **이광석씨**(마산문인협회장)

마산불교학생회지 '설산' 창간 멤버

연극·불청운동·바다살리기 등 나서



◇불교학생회 도반 홍순만씨(사진 왼쪽)와 이광석씨는 평생도반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법 홍포에 전력하고있다.

이제는 초로(初老)의 희끗희끗한 머리에 회갑을 맞이한 홍순만씨(61·마산불교청년회 후원회 회장)와 이광석씨(61·마산문인협회 회장). 두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인연을 맺고 사바세계를 화두삼아 함께한 지도 올해로써 41년째다.

두사람은 전쟁의 상흔이 도처에 깔려있던 1955년 마산상고 재학시절, 마산불교학생회지인 〈설산(雪山)〉을 창간하면서 만나게 됐다. 30여명 회원으로 창립한 마산불교학생회의 주도적 멤버였던 두사람은 '이성에 투철한 청년학도의 진리에의 탐구욕'을 〈설산〉의 창간 취지로 내세우고 불법홍포에 나서는 한편 졸업후에는 마산불교청년회를 조직해 이광석씨가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당시는 불교 정화운동이 한창이었던 때라 절집안은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박원호씨와 함께 두 사람은 불교개혁에 일조를 하기 위해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지옥도'라는 이름으로 각색해 무대에 올려 대성황을 거두기도 했다. 마산 시민극장, 제일극장 등에서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공연한 '지옥도'를 보고 많은 학생, 청년들이 불교에 귀의하기도 했다. 그 시절 불교학생회와 청년회 활동은 상당히 어려워 참석 학생들의 학교 훈육주임 교사가 지켜보고 나서야 법회를 인정해 주는 정도여서 그들의 연극공연은 더단한 불사(佛事)였다고 자랑한다.

요즘 두 사람은 마산 주변 '바다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에 입각하여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어 가는 바다를 예전의 모습대로 살려보자는 것이다. 4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는 불자들도 많이 참석하여 타종교에 비래 환경운동에 뒤쳐져 있는 불교의 위상도 높일 수 있었다.

불교학생회를 시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불교청년회를 거쳐 지금은 후원회 회원으로서 후배불자 양성과 지도에 여념이 없다. 성덕암에서 열리는 학생회와 청년회 법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후원회 주관하에 대원불교대학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보조하기도 하는 등 불자인재 육성에 열심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 있다. 홍순만씨는 "해가 바뀔수록 학생, 청년불자의 수가 계속 줄어들어 걱정스럽다"며 폐간된 〈설산〉을 복간해서라도 젊은 불자를 많이 길러내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마산=박병근 기자

만 화

法句經 법구경

* 코끼리의 장 *
싸움터에서
화살을 맞고도
참고 견디는
코끼리 처럼

이 향 원



btn캠페인① 불교 TV시청자가 됩시다

부처님을 자주 뵈면 부처님이 됩니다

불교TV! 부처님을 매일만납시다

불교TV를 보면 불교를 알게됩니다.
불교TV프로그램 하나하나에는
우리민족 정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불교문화전통의 짙은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미소 그윽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제 불교TV영상을 통해 만나보십시오.

케이블TV 설치비 50%할인권 올드립니다

- 불교TV가 불자들에 한하여 케이블TV 설치비 50% 할인권을 드립니다.
- 케이블TV신청시 할인권을 제시하면 단독주택은 4만원에서 2만원으로,아파트는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설치비를 할인해 드립니다.
- 할인권은 96.5.31까지 유효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불교TV ☎(02) 3270-3365로 문의하십시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3270-3498

케이블TV 설치 문의처
■ 서울지역 강남케이블TV(강남구)518-3000 강동케이블TV(강동구)4747-115 강서케이블TV(강서구) 3663-1414 구로케이블TV(구로 금천구)830-8300 관악케이블TV(관악구)877-5000 노원케이블TV(노원구)934-3366 동대문현합방송(동대문구) 215-0114 동부케이블TV(중랑구)433-2121 동서울케이블TV(성동 광진구)498-6000 동작케이블TV(동작구)824-8080 마포케이블TV(마포구)717-1125 미래케이블TV(도봉 강북구)999-5555 북부케이블TV(성북구)942-0001 서서울케이블TV(서대문구)365-0101 서초케이블TV(서초구)525-8852 송파케이블TV(송파구)318-2700 우리종합유선방송(송파구)418-3000 은평케이블TV(은평구)388-8000 중랑케이블비전(종로 중구)753-6781~3 한강케이블TV(영등포구)634-3200 한국통신케이블TV(일원구)645-2222 부산지역 금정케이블TV(금정구)515-6140 낙동케이블TV(강서 사상 북구)326-9112~6 동남케이블TV(남 수영구)620-5000 벡컴케이블네트워크(부산진구) 640-8585 부산케이블TV(동래 연제구)555-0300 서부산케이블TV(서 사하구)293-0300 중부산종합유선방송(중 동 영도구)412-0666 해운대케이블TV(해운대구)746-1122 대구지역 금호케이블TV(북구)953-4000 동구케이블방송(동구)985-7777 대구케이블비전(중 남구) 656-5555 서대구케이블TV(서구)567-6000 수성케이블방송(수성구)768-8888 푸른방송(달서구)551-2000 인천지역 남동케이블TV(남동구)422-4757~9 남부종합유선방송(연수 남구)875-0307 북인천케이블TV(부평 계양구) 551-9300 서인천케이블TV(서구)582-3211~4 서해종합유선방송(중 동구)761-8888 광주지역 광주케이블텔레비전(동 북구)512-4433 광주케이블TV(네트워크 서 남 광산구) 370-5700 대전지역 대전케이블TV(대덕 동구)673-3322 한밭케이블TV(중 서 유성구)222-8350~1 기타지역 수원방송국(수원)257-4011~9 (주)강원케이블TV(춘천시 홍천 철원 화천 양구군) 242-2131~2 청주종합유선방송(청주시 청원군) 271-3000 천안케이블TV(천안시 천안군)551-9991~8 전주케이블TV(전주시 완주군)250-6500 서남방송(목포시 신안 무안군)76-7777 경북케이블TV(포항시 울릉 영일군) 251-7777 경남케이블TV(창원 진해시)67-6900~4 제주케이블TV(제주시 북제주군)41-7777

법정스님 '새들이 떠나간 숲은…' 감성 언어로 빚은 생명사상

법륜스님 '그냥 살래 바꾸고 살래' 인간고통 해결 철학적 모색

정승석 교수 '인간을 생각하는…' 사랑·번뇌·업등 주제별 탐구

마음가꾸는 수상집 3권 '눈길'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수준높은 불교 에세이집 3권이 동시에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정스님(맑고향기롭게운동모임 회주)의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샘터 刊)와 법륜스님(불교환경교육원장)의 〈그냥 살래? 바꾸고 살래?〉(모색 간), 정승석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의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가지 주제〉(대원정사 간)가 그것. 모두 인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조화롭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노래하고 있다.

〈서있는 사람들〉〈무소유〉 등 침묵의 지혜를 잔잔한 감성의 언어로 빚어내는 스테디셀러 작가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아 온 법정스님의 이번 에세이집은 강원도 두메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긴 5년전, 〈버리고 떠나기〉 이후의 수행의 길을 청량한 필치로 그리고 있다. 또 스님 특유의 산방한담(山房閑談)과 자연 중심의 생명사상을 맑은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법정스님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들 각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현상의 그림자다"면서 맑은 심성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룰 것을 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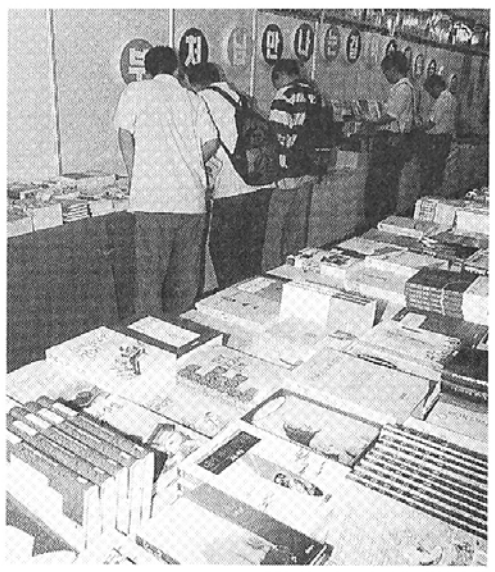


〈그냥 살래…〉는 20여년동안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온 법륜스님의 수상집이다.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모임'의 이사장이기도한 스님이 국제사회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불교적인 관점과 사회과학적 안목으로 접목, 간절한 마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생구제는 마음만의 문제도 아니며 사회구조의 변혁만으로도 해결되지 않기에,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법륜스님은 고통받고 절망하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서원하면서 '자타일시 성불도(自他一時 成佛道: 나와 남이 다함께 부처를 이룰 지이다)'를 발원한다.

정승석교수의 〈인간을…〉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도 그 실상을 지나치기 쉬운 '사랑 번뇌 업 고통 마음' 등 다섯가지 주제를 철학적이면서도 문학적인 필치로 다루고 있다. 정교수는 이 다섯가지 주제가 모두 마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파악한다. 그는 "마음의 실상을 이해한다는 것이 곧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이해로 자기의 삶을 반성함으로써 인생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출간과 동시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세권의 불서는 불교 에세이물의 질을 한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깊이 있는 양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온 불교 에세이집은 130여종에 이른다.

김재경 기자



서울국제도서전

'세계로 가는 길, 책 속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IPA(국제출판협회) 공인 국제 북페어로 격상된 '96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18~24일 서울 강남구 한국종합전시장 태평양관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 주최로 열렸다. 20개국 1천5백여 출판사가 30여만권의 책을 출품한 이번 도서전에 불교출판협의회(회장 원택스님)는 25평의 부스에 단체관을 설치, 7백여종의 불서를 전시 판매했다.

화제의 외책

인간론 · 심리학 — 사이구사 지음



창조자나 절대자를 상정하지 않는 불교는 그 출발점부터 인간학이었다. 또한 불교는 인간 내면의 마음을 끝까지 파고들어 독자적인 심리학을 수립했다.

사이구사 미쓰요시 교수(筑波大)의 〈인간론·심리학〉은 불교의 인간학과 심리학을 다룬 책이다. 역자는 김진무씨(동국대 선학과 석사과정 수료). 불교시대사의 불교학 세미나 제3권으로 번역 출간됐다.

'인간론'에서는 그리스철학, 기독교, 유교와의 비교를 통해 인도불교의 인간론을 살펴보고, 중국불교와 정토교, 선의 인간론을 고찰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원시불교와 아비달마 대승불교의 심식론을 다룬 후, 붓다의 성도(成道)를 칼 융의 분석심리학에 입각해 분석하고 좌선을 실증적 심리학으로 조명하고 있다. 〈불교시대사 1만원〉

자타카 1, 2 — 서희건 엮음



서희건 조선일보 편집부국장이 엮은 〈자타카〉(1, 2권)는 석가모니가 부처로 태어나기 전 보살로서 구도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우화나 동화의 형태로 쉽게 풀어쓴 책이다.

부처님의 전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까마귀 청학 같은 날짐승과 도마뱀 같은 길짐승으로 금수생활도 했다. 물고기에서부터 소 말 개 같은 가축이나 장사꾼, 심지어는 아이 낳는 여자, 도둑으로도 태어났었다. 한마디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투기 이전 보살로 살았던 이야기가 자타카(Jataka)이다. 〈자타카〉는 이솝우화나 아라비안나이트,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로 공덕을 쌓는 고뇌와 고통이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은 감동과 교훈을 준다. 〈문학수첩 각권 6천원〉

인도불교의 인간론 · 선심리학 등 조명 — 화제의 외책 — 우화·동화 형식의 부처님 전생이야기

새로나온 책…

▲나비의 꿈(윤정모 저)=지난해 독일에서 숨진 불자 음악가 윤이상씨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소설. 병석에 누워있던 윤이상씨가 유년기부터 숨지기 전까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롭게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윤이상의 예술적 신념이었다는 게 작가의 해석. 〈한길사 각권 5천원〉

▲문화유산 명찰(한국문원편집부 엮음)=학술적인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명찰 순례의 형식을 빌어 문화유산인 50여 명찰을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사찰의 역사와 문화재를 친근하게 설명해 불교 이해의 길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 〈한국문원 1만5천원〉

▲속벽암록(신동춘 저)=영문학자이자 시인인 신동춘교수(이화여대)가 선종의 핵심을 담고 있는 〈벽암록〉을 천착하며 지은 100수의 4행시 모음집. 〈벽암록〉을 통해 사사무애를 체득하는 길을 모색해 온 신교수는 마음으로 본 현실의 세계를 치열한 구도정신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한누리미디어 4천원〉

▲새불교 원초불교(릴리 드 실바 外 저)=발심은 했는데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재가불자들을 위해 근본불교를 중심으로 교리를 설명한 불교입문서. 저자는 근본불교를 중심으로 생활불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스리랑카의 릴리 드 실바, 호주의 레오나르드 A. 불랜, 네델란드의 니나 반 고르콤 등 불교학자. 〈고요한소리 6천원〉

▲명상으로 떠나는 시공여행(이여명 저)=시간에 얽매이고 공간만을 바꾸는 늘 공허함이 뒤따르는 그런 여행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여행, 그것은 나에게로 향하는 여행이다. 저자는 참자유를 얻기 위한 자유명상의 방법으로 희생적 생활, 감사하는 생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생활, 내면을 탐구하는 생활, 진리를 사모하는 생활, 온전히 맡기는 생활 등을 강조한다. 〈정신문화사 5천원〉

▲생활속의 진언(정의행 엮음)=이 진언집은 '진언을 왜 외워야 하는지, 진언을 외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또 탐진치를 없애고 마음을 밝히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진언들을 다양하게 모아 정리했다. 〈이바지 2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달을 듣는 강물	김 진 태	해 냄
2	기도	일 타	효 림
3	전생여행	김 영 우	정신세계사
4	금강경강의	무 비	불 광
5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6	저마다 깨친 인연이 있었네	김 원 한	우 리
7	윤회의 법칙	김 성 규	큰 산
8	나는 누구인가	마하리쉬	청 하
9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김정빈·최병용	고려원미디어
10	선의 정신의학	김 종 해	한 강 수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100선

'한국의 불교미술'

요사이 우리 것을 찾자는 유적지 탐방이 자주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떠나고 보면 늘 만나는 것이 유명한 사찰이나 폐사지이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거쳐 들어와 이미 1700년여전의 기나긴 역사속에서 우리문화속에 용해되어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남아있는 문화재의 태반이 불교의 예술품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요 좋은 명산 뿐만 아니라 풍치 좋은 자그마한 야산의 언저리에도 여지없이 절이 들어서 있다.

이와같이 불교는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스쳐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즉 수학여행을 떠나는 많은 학생들도 신라의 고도인 경주의 불국사(佛國寺)나 감은사(感恩寺), 석굴암(石窟庵)을 들렀을 때 그것이 왜 중요하며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모르고 돌아온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명언이 이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불교미술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동국대학의 홍윤식 교수가 저술한 〈한국의 불교미술〉(대원정사 刊)이란 저서를 추천한다. 홍교수는 불교의 사상과 불교미술을 연구한 학자로 특히 불화연구에는 일가를 이루고 있다.

이책의 짜임새는 먼저 불교와 불교미술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람(伽藍)의 형성과정과 배치를 말하였는데, 특히 불교의 전래시기인 삼국시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가람배치는 달라서 고구려는 1탑3금당식, 백제는 1탑1금당식을 이루며 신라는 일탑1금당식이었는데 통일후 쌍탑1금당식으로 변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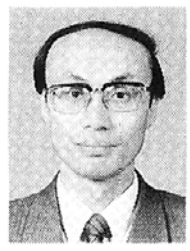
또한 절의 중심에 위치한 탑(塔)의 시대적 변천과정과 석등, 부도 등의 구조와 기능을 더불어 전해주고 있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조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불상의 출현 및 전래과정과 불상의 종류와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따라 변천해가는 불상양식의 구분법을 소개하고 있어 어느 곳을 가서도 개략적인 불상의 감별을 논할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불화(佛畵)의 기원과 구조, 범종(梵鍾)의 특징 및 변천과정과 불교공예품들인 사리용구, 공양구, 의식용 집구, 사물, 가사, 번과 당 등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 불교미술의 전분야에 대한 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불타버린 전남 화순의 쌍봉사 대웅전인 3층목조탑에 애석함을 금치 못하면서 문화재 관리 중에서도 특히 불교문화재를 불심을 가지고 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끝으로 탱화의 종류와 신앙적 형태를 알아보고 있으며 부록으로는 목조건축물, 탑, 부도, 석등, 범종, 불상과 수인(手印)의 종류를 그림으로 그려 각부분의 명칭을 예시하고 있어 실물과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독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폐사지만을 답사, 조사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 이책을 길잡이로 권하고 싶다.



오 순 제
〈한국고대사연구소장〉

시대별 불상·탑양식 상술
불교 문화재 답사 길잡이

현장스님외 염불선이야기

나를 보게 하소서



玄藏 스님은
1975년 송광사에서
九山禪師를 은사로
득도하여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보성 대원사에
수련도량을 개설
일반인과 재가불자를
위한 주말수련회를
지도하고 있다.

「염불공부는 바로 참자기(眞我)를 찾는 가장 순수한 참선 입니다.」
〈청화큰스님 머리말 중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많고 많은 죄업중에 가장 큰 죄는 "내가 나를 모르는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방황하고 고통받는 모든 원인 또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무명(無明)에서 생겨 난다고 합니다.

염불은 내가 나를 불러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가장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수행법입니다.

염불은 내가 부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염불은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을 염려하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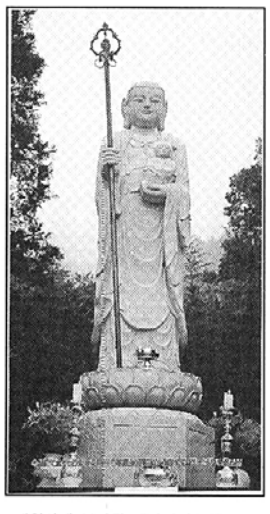
〈저자 서문 중에서〉

◀현장스님 지음 ◀민족사 퍼냄 (02)732-2403 ◀값 5500원

태아령 (胎兒靈) 천도를 위한

백일기도(죄업소멸 복덕증장) 봉행

떠도는 어린넋들을 위하여



대원사에 봉안된 태안지장보살

태안지장(胎安地藏)보살을 봉안하고 낙태유산아의 천도를 기원해온 대원사에서는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고 불쌍한 어린 영혼들의 천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6차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태아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 부터 벗어나며
세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지옥중생을 모두 구원하고자 서원한 지장보살님과 자비의 빛으로 중생을 구원해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큰 자비에 의지하여 삶의 고통과 장애에서 벗어나 공덕의 삶 누리길 기원 합니다.

기도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① 낙태의 죄업과 구원을 설한 소책자 『태아령 천도공양법』
② 염불신앙의 길잡이 『정토수행법』
③ 백일기도 자료집 『부처님께 가는 길』
④ 사경과 사물을 위한 『반야심경과 지장보살 체본』
⑤ 기도용 『태안지장보살사진』을 우송해 드립니다.

◆일 시 : 불기 2540년 5월 31일 (입재)~8월 28일 (회향)
◆동참회비 : 기도비 (5만원), 영가위패 1인당 (5천원)
◆온 라 인 : 조흥은행 322-06-008780 (석현장)
◆연 락 처 : 우)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 전화 : (0694) 52-1755, 53-1755
· 팩스 : (0694) 53-0009

천봉산 대원사
주지 玄藏 합장

조계종 총무원은 민족정신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고 재조명을 통해 불교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교문화전반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같이 폭넓은 세미나를 개최하기는 종단사상 처음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불교문화를 선양하기 위해서는 종단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줄것을 요청했다. 불교미술(20일) 음악(22일) 성보관리(23일) 등의 주제 발표를 요약 소개한다(문학은 본지 79호 15면 보도).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고 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교문화 세미나가 지난 20~23일 열려 관심을 모았다. 사진은 22일 개최된 '찬불가 4반세기, 점검과 전망' 세미나 모습.

조계종 '불교문화세미나' 요약

"새로운 불교문화 창출하자"

미술 불교미술대 설립 전문가양성·질 향상 모색

음악 찬불가 심의기구 설치…대중화 노력 필요

성보 훼손등 관리문제점 심각…국가차원 보존을

불교미술 '불교미술의 진흥방안'을 발표한 문명대교수(동국대 불교미술연구소장)는 "불교미술이 사부대중은 물론 비신도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반인을 위한 교양교육, 불사참여자를 위한 전문교육및 불교미술작가 양성을 위한 전문가 교육과 △불교미술전문대학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교수는 "현재 문화사회부로 되어있는 종단기구를 문화부로 독립시켜 문화과와 문화재과로 나누고 문화자문위원회와 성보문화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정책의 입안과 실천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참여가 활성화될 때 불교미술의 발전이 기대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불미전의 공정성을 확립시키고 권위있는 공모전으로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이기선씨(불교조형연구소장)는 '불교미술대전의 효율적 운영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현재 격년제로 시행되는 불미전을 홀수해는 전통미술부문, 짝수해는 현대미술부문으로 나누어 두 부문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호를 넓혀 세계를 대상으로 불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인류문화보편적인 교류를 위한 열린 마당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음악 1920년대 용성스님에 의해 포교의 일환으로 만들어지고 배포되기 시작한 찬불가가 본격화되고 일반화된 것은 70년대부터이다. 찬불가는 △찬송가와 멜로디 유사 △합창단위주로 보급 △전문인 부족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덕신스님(조계종 문화국장)은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불교합창단협의회와 불교음악 발전을 위한 후원회 결성 △전문음악인 영입 △불교방송·불교TV의 음악프로 활성화 △각 사찰합창단 산하에 어린이합창단 창단 △창작불교노래발표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서양음악에 의한 찬불가의 창작'을 발표한 이만방교수(숙명여대 음대)는 "종교음악의 경우 바로 심성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성을 잃어버리면 본래 모습을 찾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찬송가풍 복음성가풍의 노래를 지양하고 불교정신과 특성이 배어있는 찬불가를 만들도록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찬불가 심의기구 설치와 규정제정, 종단차원의 불교음악연구소및 불교음악교육기관 설립, 국제불교음악 학술대회와 연구발표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박범훈교수(중앙대 음대)는 '창작찬불가의 역사적 배경과 전망'에서 "불교음악은 종교음악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삶의 소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음악"이라고 전제하고 "전통불교음악의 선율, 장단구조, 짜임새 연주법상의 시김새 등을 분석 연구해 이것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불교음악이 창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전문연주단체, 인재양성, 불교음악경연대회 및 창작작품공모 등 다양한 제도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반영규씨(자비의 소리 대표)는 "보다 완벽한 인격과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찬불가의 가사는 품위있고 수행하는 마음이 담겨야 하고 문학적으로도 훌륭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불교전문용어는 풀어서 쉽게 △직설적 표현보다 함축된 표현 △거친말 속된 표현, 지나친 고어와 난삽한 말의 사용 배제 △지나치게 기복적·의타적인 표현 자제 등을 요구했다.

성보관리 홍윤식교수(동국대 박물관장)는 '불교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하의 발표에서 "사찰소장 문화재는 일반문화재에 비해 신앙의 대상이란 특수성을 지니므로 그 관리방법도 특수성을 띄어야 한다"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성보박물관의 건립은 매우 고무적이나 단순히 유리속에 보관하는 차원이 아닌 참배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불교에 대한 신앙심을 고취시킬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씨(문화재 위원)는 "종단이 중심이 돼 각 사찰 성보문화재에 대해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성보박물관건립이 필수적"이라며 "각 사찰 특성에 맞는, 성보를 중심으로 한 특별강좌개설과 종단내 '성보보존위원회'활성화, 성보보수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성보보수기동보수단'을 신설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숙 기자

오색연등도 함께한 '열린음악회'

불국사 1만여 사부대중 동참 '환희심'

오탁악세를 벗어난 피안의 세계, 다보와 석가의 탑파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부처님나라 불국사 경내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퍼졌다. 부처님오신날 및 불국사·석굴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8일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앞에서 열린음악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불국사주지 설조스님과 이의근 경북지사 이원식 경주시장과 시민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해 산사음악회를 만끽했다.



◇불국사 스님 및 신도, 경주시민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동참한 KBS 열린음악회.

형형색색의 연등이 불국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가운데 은은한 3번의 타종으로 음악회는 시작됐다. 이광조 안상수 박남정의 '솔개' 삼중창을 비롯해 최진희 이은하 김태곤 등 인기가수들과 바리톤 김원경씨가 출연해 '송학사' '장안사' 등 노래를 열창했다. 특히 국악인 김영임씨가 청량사 룸비니어린이합창단과 함께 '탑돌이'를 부를 때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불국사 어머니회원들이 석가·다보탑 주위를 탑돌이하여 절묘한 앙상블을 연출했다. 또한 테너 시명스님(통도사)이 '석굴암' '청산에 살리라'를 노래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무대뒤켠으로 계곡물이 구름다리아래를 지나 연지(蓮池)로 흐르는 물소리를 배음삼아 울려퍼진 화음에 흠뻑 심취했다. 이날 녹화를 마친 불국사 열린음악회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30분동안 KBS 1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됐다.

경주=이윤호 기자



◇세계적인 현대음악 작곡가 고 윤이상씨의 음악회가 종립 동국대(사진)와 KBS 홀에서 열렸다.

윤이상음악회 '관객만족'

'바라' 등 동양적 선율담긴 현대음악 음미

세계적인 현대음악작곡가 고 윤이상을 추모하는 음악회 '飛天 겨레의 하늘을 날아…'가 지난 15일과 17일 KBS홀과 동국대 교정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음악회에는 불교의 원융사상을 정신의 한 축으로 하여 한국적 전통음악적 요소와 서양현대기법을 깊이있게 조화시켜 동양적 현대음악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는 윤씨의 관현악곡과 가곡, 기악곡들이 연주됐다. 특히 관현악 '바라'는 불교사상을 주제로 하면서 길게 지속되는 음향들이 단절됨없이 중첩되는 독특한 음향기법이 사용되고 바이올린과 목관악기가 이끌어내는 독주들의 대화가 등장해 윤이상의 음향기법을 잘 나타내주는 곡으로 이번에 한국 초연됐다.

이번 음악회에는 윤이상과 함께 활동했던 도모코 키바(바이올린) 그레고리 존스(첼로) 파울로 알바레스(피아노)등 독일 현대음악가들이 초청 연주해 한층 고인을 기리는 뜻을 더했다.

또한 이병렬(소프라노) 고성현(바리톤) 김인혜(소프라노) 임웅균(테너)씨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 '고풍의상' '그네' '그리운 금강산' 등 가곡과 민요 오페라 아리아 등을 노래했다. 〈숙〉

문화단신

세계유산지정 기념 불국사·석굴암 음악회

불국사 석굴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정 음악회가 지난 28일 오후 7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동국대 국악과 주관으로 열렸다. 음악회 1부는 관현합주 '영산회상중 염불도드리' 관소리 '춘향가' 승무 범패 바라춤 등의 공연, 2부는 관현악과 합창단이 찬불가를 공연, 박수를 받았다.

도열스님 작품전

연꽃세상등 구도메시지

도열스님의 다섯번째 작품전이 5월28일부터 6월5일까지 한전프라자갤러리(02-758-3494)에서 개최돼 구도의 메시지를 표현한 만다라 그림을 선보인다.

박근자씨 개인전

30일까지 유나화랑

원로화가 박근자씨의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강남 유나화랑(545-2151)에서 열리고 있다. 끊임없는 실험정신을 추구해온 박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깊은 내면의 세계를 차분하게 표출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고침 본지 79호 15면 '봉축展'에서 생명의근원전과 물미협회원전의 사진이 바뀌었기에 바로잡습니다.

眞景시대 특별전 간송미술관

6월 2일까지…서화등 120여점 전시

간송미술관 설립30주년, 개관25주년을 기념하는 '眞景시대특별전'이 오는 6월 2일까지 성북동 간송미술관 1·2층 전시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진경시대란 조선조 숙종대(1675~1720)부터 정조대(1777~1800)까지를 일컫는 문화사적인 개념으로, 조선성리학을 바탕으로 조선 고유문화색을 한껏 드러내면서 난만한 발전을 이룩했던 문화절정기를 지칭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말까지 만들어진 그림과 글씨, 도자기, 서적 등 총 1백20여점이 전시된다. 겸재 정선 혜원 신윤복 현재 심사정 단원 김홍도 표암 강세황등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과 윤순 이재 김시민 이광사 등 명필들의 작품,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 초간본과 사도세자의 문집 '능허관만고'등 귀중본들도 전시되고 있다.

전시와 함께 발간된 〈澗松文華 50〉에서 정병삼교수(숙명여대)는 '진경시대 불교의 진흥'기고를 통해 "조선고유색을 드러내는 진경시대에 사원에도 중창불사 즉 사원건축과 불상 및 불화조성이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강경(講經)이 성행하는 사상적 진전과 함께 유학자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경향은 비판위주에서 점차 관심과 이해로 바뀌고 승려와 문사의 교유가 잦아지면서 승려의 문집간행이 성행하는 풍조를 이루었다"고 소개했다.



원효문예대제전

원효선사 열반 1310주기를 맞아 원효스님을 기리는 원효문예대제전이 지난 16~17일 이틀간 경주 분황사, 황룡사지, 시내일원에서 성료됐다. 이번 문예대제전에는 봉찬법요식을 비롯 노래마당 춤 연날리기 무애가 무마당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사진은 16일 분황사 모전석탑앞에서 열린 봉찬의식중 '헌화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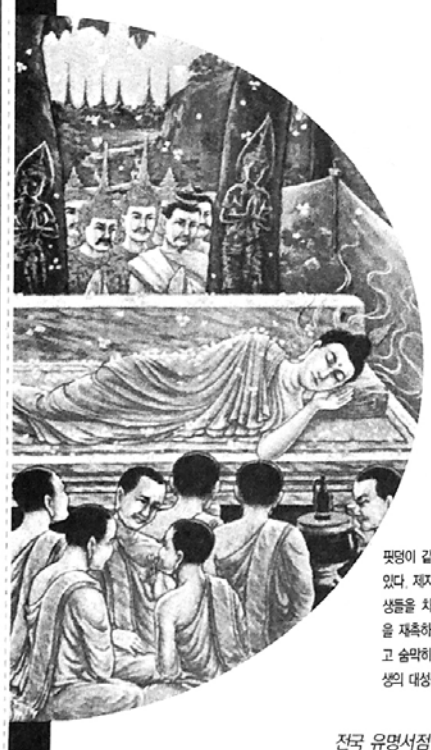
〈경주=이윤호 기자〉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역해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국판/400면/값 7,000원

◇ 계율에 대하여 ◇ 욕심에 대하여 ◇ 희론에 대하여
◇ 마음에 대하여 ◇ 만족에 대하여 ◇ 수행에 대하여
◇ 음식에 대하여 ◇ 떠남에 대하여 ◇ 의문에 대하여
◇ 수면에 대하여 ◇ 정진에 대하여 ◇ 진리에 대하여
◇ 인욕에 대하여 ◇ 정념에 대하여 ◇ 부촉에 대하여
◇ 교만에 대하여 ◇ 선정에 대하여 ◇ 무상에 대하여
◇ 아첨에 대하여 ◇ 지혜에 대하여

뭇덩이 같은 중생들을 두고 떠나서야 하는 열반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제자는 걱정 마시라고 오히려 대스승을 위로하고 있지만 가엾은 중생들을 차마 두고 떠나시기가 안쓰러워 의심이 있느냐고 거듭거듭 질문을 재촉하셨다. 숨을 죽여가며 열반을 지켜보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급하고 숨막히게 이어지는 그분의 마지막 유시가 끝나자 산천초목과 억조창생의 대성통곡이 전 허공계를 울리었다.

전국 유명서점 절찬 판매중! 태일출판사 단체 주문 받습니다 927-2834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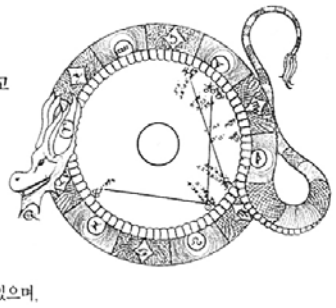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리고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환생의 체험 사례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

조 피셔 지음 /손민규 옮김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환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에도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더 많은 체험을 갈망하게 하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어쨌든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한다."

환생설은 티벳 불교인들의 생활양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환생설은 연기설(緣起說)과 인과(因果)의 법칙과도 관련되어 있다.
지혜와 자비의 계발은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이룬 더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지향하는 바, 따라서 이런 계발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환생이 필수요인이다.
– 달라이 라마 –

신국판/280면/값 6,000원

태일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화순에 실버타운 '소향원' 건립

광주 관음불교회관 물리치료실등 갖춰 6월 개원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전남지역의 첫 노인들을 위한 대규모 불교실버타운이 생긴다.

광주 관음불교회관(관장 정월곡)에서 건립하는 소향원은 오는 6월 중순 전남 화순군 춘양면 4천여평의 부지에 50여명의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원으로 문을 연다.

3동의 단층건물에 건평이 217평 규모인 소향원은 노인서비스를 위해 35평의 법당을 비롯하여 14개의 방과 50평규모의 세탁실 오락실 물리치료실 의무실 자원봉사실등 현대식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건물 내부공사까지 마친후 외부조경공사가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소향원은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으로 2년불사를 계획 중이다.

올해에는 부부가 상호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입소할 수 있는 실비수준의 유료양로원과 노인요양원공사를 시작하여 내년에 설립하고, 노인전용병원도 내년에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의 수려한 공간을 이용하여 운동장 소공원을 갖춘 대규모 불교실버타운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자는 평생의 원을 이루게돼 기쁘다"는 소향원 정월곡 관장은 무의탁노인을 위한 무료양로원 개원과 관련하여 "18년여를 추진해 왔다"며 "신행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한·중·일 3국의 천태종은 지난 15일 중국 국청사에서 지자대사 열반 1400주년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삼화사 약사전 신축기공

국내 最古 철제약사불 봉안…11월 완공

국내 최고로 추정되는 철제약사불을 모신 강원도 두타산 삼화산 약사전이 새롭게 조성된다.

삼화사(주지 원행)는 지난 19일 비룡 인허스님을 증명으로 모신 가운데 약사전 신축기공식을 봉행했다. 약사전에 봉안될 철불은 신라 효성왕 3년(739년)에 조성된 것으로 실상사 철제여래좌상보다 약 1백여년 앞선 연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2호로 지정된 삼화사 철제약사불은 높이 1m 넓이 65㎝로 비교적 작은 불상이다. 그동안 이 불상은 2평 남짓한 콘크리트 기와 전각에 봉안돼 왔었다.

원행스님은 "도둑이 철불을 훔쳐 달아나다가 화를 입는 등의 전설을 간직한 불상"이라고 소개하고 "25평 규모의 전통고건축양식의 약사전을 신축해 여법하게 모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11월 완공 예정이다.



◇올 11월 신축 약사전에 봉안될 삼화 철제약사불.

한·중·일 천태종 공동불사 '서막'

中 국청사 지자대사 열반 1400년 법회 3국대표 참석

한·중·일 3국의 천태종이 내실있는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관계교류에 나선다.

한·중·일 3국의 천태종은 지난 15일 중국 천태산 국청사 대웅전에서 한국의 운덕총무원장 일본 우에야마좌주 중국국청사 가명방장을 비롯한 각국의 스님,신도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대사 열반 1천4백주년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천태종 스님들의 분향으로 시작된 이날법회는 각국의 독경의식과 법어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의 시대는 정법이 은폐되고 불락한 오탁악세이다"며 "인류정신위기를 구제하기위한 지자대사의 일승묘법이 천태교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천태종은 중국천태종 스님들과 지난해 완공한 지자대사 의천국사 상월조사를 모신 국청사 조사당에서 법회를 열고 교세의 확립과 종풍의 선양을 다짐했다.

법회가 끝난후 한·중·일 3국의 스님들은 지난 89년부터 교류해온 것을 탐색기로 삼아 올해부터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동아시아평화와 세계인류공헌에 이바지하는 실적적인 교류로 확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한국천태종은 지난9일 중국북경에서 중국불교협회 조박초회장을 방문하고 한중불교유대를 강화키로 했다. 이자리에서 조회장은 "중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중국스님들을 한국에 유학보내고자하니 한국천태종이 도와달라"고 말했으며 전운덕 총무원장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파생 신흥종교 75개 4월현재

종교학회서 밝혀

96년 4월 현재 한국불교의 신흥종교는 모두 7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우 소장(한국새종교연구원)은 지난 11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종교학회 춘계세미나에서 '한국불교계의 신흥종교 현황'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소장은 신흥종교의 발생기를 제1기(근세~광복 전), 제2기(광복 후~1963년·불교재산관리법시행기), 제3기(1988년·전통사찰보존법시행기~현재)로 나누어 구분하면서 제1기에는 10여개의 신흥불교단체가 발생했으나 불법연구회(현재 원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모두 소멸됐다고 밝혔다.

제2기에서는 조계·태고 양종을 제외한 밀교계열, 법화계열, 화엄계열 등의 진각종, 한국 법화종, 총화종 등 모두 18개 종단이 등록했으며, 미륵정신회, 대동불교, 천불도 등 29개 미등록 단체를 합해 모두 50여개의 단체가 별도 법인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등록규정이 완화된 제3기에는 기존 종단이 다시 62개 종파로 분파됐으며, 이에 13개의 신흥불교단체가 발생해 현재 모두 75개의 불교단체가 활동중이라고 밝혔다.

이소장은 "신흥종교가 사이비종교나 저급한 종교로 잘못 인식돼 있다"고 전제하고 "대부분 신흥불교단체가 뚜렷한 층체를 갖지 못하거나 변화가 심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신노인 70% "재혼 고려치 않아"

보각스님 '노인 性의식 조사' 발표

자식의존보다 독립생활 선호 추세

별거 또는 사별해 홀로 있는 노인들 대부분은 재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재혼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타인과 의논하기 보다는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혼 상대자의 선택기준은 경제적 여유와 건강, 성격 순이었다.

보각스님(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은 지난 14일 불교사회복지연구소 3차 학술심포지움에서 '노인 재혼문제-性문제에 관한 의식조사' 발표를 통해 서울 거주 노인 1백9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이같이 설명했다.

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별거·사별중의 노인중 70.2%가 재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꼭 재혼하고 싶다는 노인은 3.8%에 불과했다. 재혼에 대한 토론대상은 친구(21.7%) 자식(16.7%) 친척(5.0%) 기타(55.0%)로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혼에 대해 '자식들이 무관심하다'는 반응이 반수이상(50.6%)이었으며,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3%, 반대는 36.5%로 재혼에 대한 자식들의 반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의 생활실태 조사에서는 장남동거(25.5%) 부부만 동거(21.2%) 독신(19.0%) 등 과거 장남에만 의존하던 주거행태가 크게 변화되고 있었으며, 생활비는 자식(39.5%) 본인노력(20.5%) 연금(10.8%) 등에 의존하고 있어 아직까지 자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자립형 노인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경전드라마 '유마경' 비디오 나왔다

불교TV 영상사업단 제작…내년 봄 2부 출시

불교TV 영상사업단이 경전 영상화 작업의 기치를 내걸고 지난해 7월 28일 크랭크인에 착수했던 첫 불교경전드라마 '유마경'이 비디오로 출시됐다.

모든 중생의 고통과 병을 대신 아파하며, 함께 그 번뇌를 나누는 유마의 자비심과 불이법문, 정신을 담은 작가 정찬주씨의 동명소설 〈유마경〉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영화 '하얀전쟁'의 시나리오작가 오태영씨가 각색을, 불교TV 영상사업단 이원덕부장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 드라마 '유마경'의 주인공 민준역은 SBS드라마 '목소리를 낮추세요' 등서 활약해온 탤런트 이상훈씨가 맡았으며, 민준의 상대역 이욱에는 '한지붕세가족' 등 드라마와 CF모델로 활동해온 안승미씨가 캐스팅과 열연을 했다. 그밖에 지행거사역에 중견탤런트 박병호씨와 운공스님역에 박용식씨, 만해스님역에 불교TV 영상사업단 이상민PD, 만해스님 은사역은 설봉스님이 각각 맡았다.

감독을 맡은 불교TV 영상사업단 이원덕 부장은 "드라마 '유마경'은 당초 1부와 2부 2편으로 제작될 예정이었으나 후반부인 2편이 눈을 배경으로 한 장면이 대부분인데 지난해 기상여건이 여의치 않아 촬영을 다 끝내지 못했다"면서 "올 겨울 나머지 촬영에 들어가 드라마를 마무리하고 내년 봄 2부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드라마 '유마경'에서 지행거사가 민준을 치료하고 있다.

목탁소리

이 은 자 〈취재2부 기자〉

불교TV '홍역 치루기'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대규모 행사중의 하나였던 불교TV '불교문화대제전'의 돌연취소가 불교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교문화대제전은 그 준비과정에서도 수차례 행사개최 여부에 대해 '한다, 못한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었고, 사실상 5월행사를 앞두고 모든 준비들이 한단계 늦게 시작된 것도 사실이다. 불교TV측은 이번 불교문화대제전의 취소이유를 영등포구청이 생활관 3천평에 대한 허가취소를 행사 개최 10여일을 앞두고 갑자기 통보해 온데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관할관청의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행정집행도 문제는 크다. 하지만 불교TV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점검과 준비가 필요했다.

시설시공자와 이벤트기획회사로 구성된 불교문화대제전 후원회 대책위원회가 불교TV를 고소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는 불교TV측은 "현재 대책위원회와 의견조정중에 있으며, 이들과의 합의를 통해 같은 피해자인 만큼 영등포구청에 공동대응의 형식을 취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불교TV측은 오는 가을 한·중·일 3국불교대회 개최식에 맞춰 행사를 재개할 계획임을 표명했다.

여하튼 불교문화대제전의 취소는 그 행사규모만큼이나 사회에 미칠 불교의 이미지 손상, 물질적 피해등 많은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할구청의 잘못을 명백히 밝혀내 사태를 마무리짓고, 신중한 계획추진으로 행사를 여법하게 치루는 것만이 실추된 불교TV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복이 될 인연을 만나면 복이 되고,
불행한 인연을 만나면 불행이 온다.

불치병,난치병,조상묘지 상담

◎현재 많은 분들이 만성질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고쳐진듯하다 또다시 재발하는 그 원인은?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치료와 조상과 부모 형제의 영혼과 고혼을 편히 모셔주면 자손들이 좋은 발복을 받아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는 비법을 오링 테스트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법현법사!

◎신비한 영험을 얻는 비전을 법현법사 특별상담!

오링테스트는
생명과학의 파장테스트다.

오링테스트는 파장의 원리와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비법으로 테스트하면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는 신비의 비법이다.

만성질병 상담
정신병, 우울증,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묘지상담

- ⊙조상의 유골에서 좋은 기를 받아야 자손이 복을 받게되고
- ⊙조상의 유골에서 나쁜 기를 받으면 불행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풍수 길·흉론이다)
-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개발한 명당 도예는 영령을 영실에 편히 모시는 영혼의 명당유택이 된다.
- ⊙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명당도예에 모셔서 땅에 묻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면 대운세의 터전이 되어 좋은 발복을 받아 행복과 영광이 이루어진다.
- ⊙운명을 가로막는 영혼과 병고와 불행을 주는 고혼을 지극한 효심으로 명당도예에 모셔주고 극락정토에 이룩하게 하면 그 공덕으로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어 만성질병도 치료되고 행운과 소원이 성취된다.

◆ 서울상담 ◆
· 장 소 : 안국선원 (송파구 오금동, 전철5호선 방이역 100m)
· 상담일자 : 매주 금,토 (2일간)
· 상담접수 : (02) 3401 - 3259

◆ 부산상담 ◆
· 장 소 : 대한불교불심포교원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뒤)
· 부산 상담일자 : 월~수 4일간
· 상담접수 : (051) 465-5100, 467-5200



불교아동문학 깨달음의 세계

육바라밀 미래의 부처님을 위한 아름답고 진실한 불교동화

어린이들의 고운 심성에
참다운 부처님의 세계를 아로 새겨줄
아름답고 진실한 6가지 불교 이야기



〈깨달음의 세계〉는 불교 아동문학가로 이름 높은 이슬기 선생님이 6바라밀에 관한 내용을 어린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 창작했기 때문에 문학적 가치가 높은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의 부회장이시며 사단법인 자비와 행함이 하나 되어회의 회장이신 송묵 스님께서 자상하게 감수를 해 주셔서 아동들이 아름다운 정서와 올바른 심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1 베푸는 마음(보시 바라밀)
2 계율을 지키는 마음(지계 바라밀)
3 인내하는 마음(인욕 바라밀)
4 노력하는 마음(정진 바라밀)
5 깨끗한 마음(선정 바라밀)
6 슬기로운 마음(반야 바라밀)

· 책을 지으신 분
■ 이슬기 선생님 한국 불교아동문학회 이사
· 책을 감수해 주신 스님
■ 송묵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동원정사 주지

도서출판 하나원
서울 마포구 용강동 149-6 전화 : (02) 701-2730, 2731 FAX : (02) 701-2731

현불뉴스

종립광동여고 교내 봉축

오정부 광동여고(교장 김양수)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교내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꽃들의 큰잔치'를 거행했다.

재학생 1천2백여명의 신심함양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합동수계식, 찬불가 경연대회, 연꽃노래잔치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학장선임 반대 성명

중앙승가대학 학생회(회장 원철)는 이사회의 차기학장 선임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지난 17일 이사장 월주스님을 항의 방문했다. 학생회는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총무원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문제 △학교이전에 관한 향후 대책 △이사회의 일방적인 학장 결정에 따른 문제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청도군민 위안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청도군사암연합회(회장 도견스님)는 지난 20일 청도군 공설운동장에서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군민 위안대법회를 봉행했다.

'맑고…' 대구음악회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회주 법정스님) 대구준비모임 주관으로 열린 '법정스님과 함께 하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가 지난 22일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사)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대구 동화사에서 제21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유해환경 근절운동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는 오는 29일 인천백화점에서 5월 청소년의 달 특별 정화캠페인을 벌인다.

6월 1·2일 조계사·수송공원 일대 '청정국토 한마당'

문화공연등 환경행사 다채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 주제

2540년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하고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불교환경교육원등 24개 신행·환경단체들은 오는 6월1일부터 2일까지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를 주제로 불교환경축제인 '제2회 96 청정국토한마당'을 조계사와 수송공원 일대에서 펼친다.

불자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불교환경축제는 1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생명살리기 불자의 서원을 다짐하는 기념법회에 이어 4시 30분부터는 녹색예술단의 관소리 수궁가를 각색하여 환경을 살리자는 내용의 환경마당극 '금수강산 썩을씨고'가 공연될 예정이다.

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청소년 어린이행사로 조계사에서 어린이 청소년 포스터 글짓기 전시회와 수송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환경만화가 사인회' 우리 농산물로 만든 어린이 요리경연 '신토불이 꼬마요리사' 제기차기 고무줄놀이 공기등 전통민속놀이 '가족전통민속놀이 한마당'이 다채롭게 열린다. 이날 문화공연행사로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환경비디오'(문화관)가 상영된다.

또 교환 및 판매행사로는 2일 환경상품전시 및 판매행사가 전개되고 △생명나무 만들기 △금연침 놓아주기 △전통차 마시기 △발우공양 시연 △재생비누제작시범 및 판매 △레몬스프레이 제작시범이 조계사 경내에서 개최되고 북한산에서는 우리는선우가 새집 달아주기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와함께 개발로 사찰이 훼손되고 있는 국립공원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국립공원 파괴와 사찰환경 사진전시회 △국립공원지키기 서명 및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한편 여성불교연합회는 4일 서울 명동 LCI프라자 2층에서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이정전교수(서울대)가 '환경보전을 위한 바람직한 소비생활' 전재성교수(한국불교대학)가 '환경윤리학의 제반문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종교 문화예술 학술 시민운동 등 69개 단체는 지난 22일 종묘공원에서 경주문화재보존 촉구 대회를 열고 건교부 노선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진=고영배 기자〉

경주통과반대 시민운동 확산

재가회의·경실련·역사학회등 69단체 적극 동참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반대 여론이 범시민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불교재가회의를 비롯한 불교계 32개 단체와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 경실련 역사학회 등 시민운동 문화예술 학술 등 69개 단체는 지난 22일 '경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했다.

연석회의는 22일과 27일 잇따라 건교부노선반대와 문화재보존 촉구대회를 열고 "경주의 보존과 문화재 보호라는 대의에 충실한 결정을 내릴 것"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결성 성명서에서 "경주통과는 단순히 경주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켜내는 역사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경주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하고 도심통과 반대운동과 함께 경주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각종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5월말로 예정된 노선결정 최종시한을 남겨놓고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경주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노선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도심 메운 연합봉축 행렬"

18일 부불련·신도회등 7천여 불자 동참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연합대법회와 차량 장엄물 행렬이 7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오후 부산사직 실내체육관과 부산시 일원에서 봉행됐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성오)와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 공동주최로 봉행된 이날 연합법회에서 군법당과 각급 학교 불교학생연합회, 공창, 개금, 두송복지관 등에 포교지원비가 전달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물 행렬에서는 법어사, 삼광사, 한마음선원, 천불사 등에서 참가한 70여개의 장엄물이 등장했으며 행사장에서 구덕운동장까지 20㎞에 이르는 구간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진행됐다.

경불련 '자비의 집' 서울시 지원단체로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회(공동대표 설조·안동일)가 운영하는 자비의 집이 서울특별시 시민단체 지원사업 대상단체로 선정됐다. 자비의 집은 이번에 도시락 배달, 빨래·청소 등의 가정방문 봉사, 한방의료봉사, 명절음식 나누기 활동이 건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전개한다.

성남·울산서도 사찰방화

망경암·백련암 대웅전 전소…교계 '불비상'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교도들에 의한 사찰방화가 계속돼 교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23일 0시10분경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망경암(주지 정법)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20여평의 대웅전을 전소시키고 25분만에 꺼졌다.

이에앞서 지난 19일에도 울산 백련암(주지 박성철)에 화재가 발생 34평의 대웅전을 전소시켰다.

이번 방화사건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서울 삼성암, 본원정사, 화계사 등을 비롯 사찰방화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망경암 주지 정법스님은 "몇년전부터 이교도들이 성경책·선교용 테잎 등을 사찰에 놓고 가는 한편 심지어 법당에까지 난입, 붉은 페인트로 '마귀야 물러가라' 등의 문구를 새겨놓아 이번 방화도 이교도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열리는 새날 정진하는 불교청년"

대불청 15차 청년대회 6월 15일 열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6월15일부터 16일까지 수원전문대에서 제15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열리는 새날 정진하는 불교청년'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경기지구를 비롯 전국 각 지부·지회 회원 1천5백여명이 참석, 대한불청 화합의 한마당을 펼친다. 특히 이번 전국불교청년대회는 기존의 통일운동뿐만 아니라 불교도의 효행관이 사회선도와 인류애로 실천, 회향될 수 있는 가치관을 정립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어 77년의 대불청 역사에 또다른 변화와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15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공동체놀이, 통일성곽순례(수원성), 세미나(21세기를 향한 불청의 발전과 역할), 집체극, 강강술래 등의 행사를 다채롭게 펼친다. 또 16일에는 정락스님(용주사 주지)이 '불교도의 효행관과 인류애로의 실천회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백팔염주 목에 건 바조

월드컵 한국유치 홍보차 방한 김흥국씨 염주·CD앨범 선물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 홍보를 위해 방한한 세계적인 불자축구 선수 로베르토 바조와 불자가수회 회장 김흥국씨가 지난 22일 쉐라톤 워커힐 호텔서 만났다.〈사진〉 생방송을 막 끝내고 약속시간보다 늦게 호텔에 도착한 김흥국씨가 기다리다 숙소로 올라가려던 바조선수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된 것. 김씨는 자신을 한국의 유명한 불자가수라고 소개하고 108염주를 바조선수의 목에 걸어주며 "종파는 다르지만 불교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 바조 선수에게 내가 평소 아끼던 108염주와 나의 CD앨범 '2002년 월드컵 코리아'를 선물한다"면서 "조계사를 방문했으면 더욱 좋았을 걸 그랬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바조선수도 "진심으로 2002년 월드컵이 한국서 유치되길 부처님께 기원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흥국씨는 지난 21일 강남 봉은사에서 새벽 3시부터 5시간에 걸쳐 월드컵 유치기원을 위한 2002배를 완료했다. 김씨의 2002배는 오는 28일 KBS 2TV '도전 회전목마(밤 8시25분)' 시간에 방송된다.

이은자 기자

조계사 대웅전 해체 복원키로

현대건설과 42억여원 보상합의

현대건설이 조계사에 대웅전 복구·보상비를 지급키로 합에 따라 한국일보 신사옥건설로 인한 대웅전 붕괴 진행으로 빚어진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조계사와 현대건설은 지난 17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조계사 피해복구에 대한 희의를 갖고 복구보상비로 42억6천만원에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6개월에 걸쳐 이 금액을 조계사에 지급키로 했으며, 29일 1차분 8억원을 당좌수표로 조계사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조계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이후 대웅전을 해체 복원할 예정이다.

조계사 대웅전과 해탈문 총무원청사는 지난해 3월 한국일보 신사옥건설에 따른 지반발파공사로 인해 대웅전 상량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내려앉는 등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뇌사 17세 불자 김종운군 장기기증

못다한 삶 '생명나눔으로'

부처님오신날을 10여일 앞둔 지난 16일 서울 중앙병원의 한 수술실에서는 여러명의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화물트럭과 충돌해 뇌사상태에 빠진 올해 17살의 한 청소년이 자신의 각막 및 장기기증으로 무려 네사람에게 새생명을 주고는 가족들과 주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 현장이었다. 이같은 보살행의 주인공은 진주상업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던 김종운군으로 불심돈독한 가족들의 뜻에 따라 생명공양을 실천했다.

아들의 급작스런 사고로 실의에 빠져 있던 최군의 아버지 최정국씨는 "내 자식은 삶을 다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갔지만 네사람의 가족을 더 얻었다"며 위로하면서도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들의 결심에 따라 감로심장회(이사장 정일)와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최종운군의 각막 및 장기기증은 불자 하정자 안태윤 정옥하 곽호성씨등 네 사람에게 기증됐다. 이는 거룩한 생명공양의 실천외에 교계단체간의 결연이 원만하지 않는 실정에서 서울과 지방에 있는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로 이뤄진 것으로 복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필〉

마음 苦는 苦가 아닙니다

고는 마음공부의 재료입니다. 고는 나를 깨우쳐 줍니다. 즐거움은 나를 공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잠자게 만들지만 고통은 내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고는 고가 아닙니다. 고를 통해 공부를 하게 되었다면 고는 축복입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 귀하는 외국에 나가면 민간외교 사절입니다 ·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 TEL (02)779-6954
※문화체육부 일반여행업등록 제8호 · KATA 광고 심의필

MBC 해외 문화탐방
실크로드
千年佛心이 살아있는 실크로드 대순례

혜초스님이 가셨던 求道의 길로-
고대중국의 찬란한 불교예술이 숨쉬는
돈황의 막고굴, 그 천년벽화의
신비를 직접 만나보십시오.
투르판의 고창고성에선 삼장법사의
전설같은 발자취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MBC 프로덕션과 한진관광이 함께
마련한 실크로드 대순례-
불자 여러분께 잊지못할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출발일 6월17, 20, 24, 27
7월1, 4, 8, 11, 15, 18

탐방일정 9박 10일
천진-북경(2), 이화원, 만리장성, 자금성등-우루무치(2), 흥산, 천산, 천지-투루판(1), 천불동, 화염산, 고분군등-열차박(특실1박)-유원-돈황(1), 막고굴, 명사산-서안(1), 종루, 서안성벽, 비림, 병마용, 진시황릉, 화청지-북경(1), 천단공원

특전
1. 특식제공(북경 오리구이, 서안 교자연)
2. 중국 전통 방당가무 관람
3. 진시황릉, 병마용, 천산, 천불동, 돈황석굴 등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신비의 관광 명소 종망라
4. 특급 및 각 지역 최고급 호텔 이용
5. 고급 여행용 가방 및 기념 티셔츠 증정

참가비 1,8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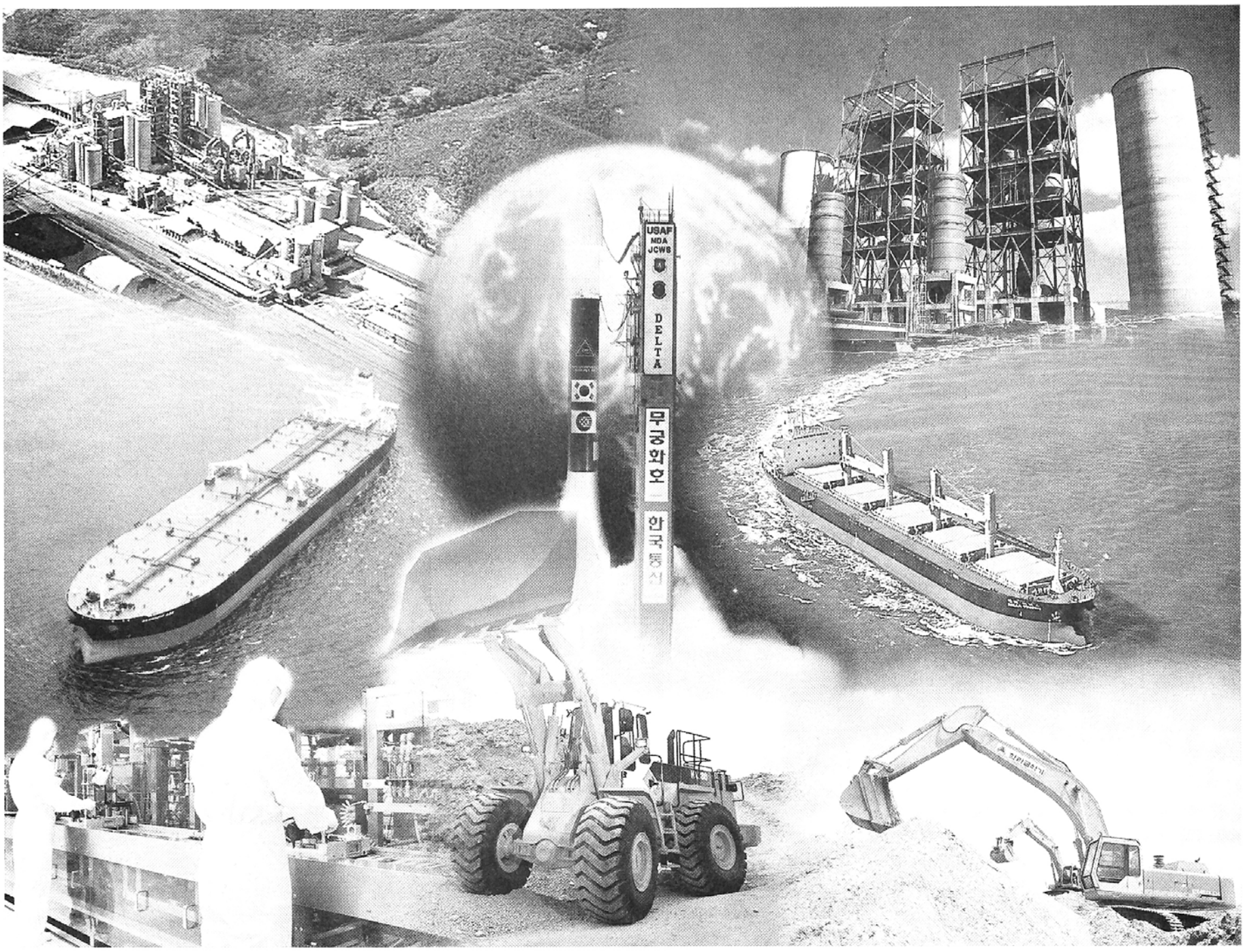





주최: MBC 프로덕션
후원: 大韓航空
주관: 韓進觀光
문의전화 726-5791~7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132-4 한일B/D
부산: 463-2115 대구: 426-6706/8 대전: 252-2034/5
제주: 42-7217 경주: 745-3070/3 광주: 228-0041/2

●공통여행조건 1. 전일정 식사포함(기내식 포함) 2.왕복항공편 이코노미석, 전용버스, 열차(특실) 이용 3.특급 및 각 지역 최고급 호텔 사용(2인1실 기준) 4.출발일 7일전 예약마감, 15명이상 출발 5.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6.전문 투어 가이드 동행

HALLA 자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 라



信賴와 創造의 企業, 漢拏

漢拏는 重工業, 發電設備, 自動車部品, 建設, 시멘트, 貿易, 海運,
創業支援投資, 情報通信, 펄프 및 製紙, 環境事業 등
여러 分野에서 더욱 信賴받는 企業으로 成長하고 있습니다.

漢拏의 ULTIMATE GOAL(窮極目標)은 最善의 品質과
最善의 生産性, 最善의 競爭力을 바탕으로 하는
堅固한 基盤위에 나름대로의 企業文化와 企業倫理를 꽃피우고
이러한 基盤위에 企業의 無限한 繁榮을 追求하면서
國家社會에 나름대로의 責務를 다하는 것입니다.

HALLA 漢拏
〈信賴와 創造〉

한라중공업 • 만도기계 • 한라건설 • 한라시멘트 • 한라공조 • 한라자원 • 한라해운 • 한라콘크리트 • 한라창업투자 • 캄코 • 마이스터 • 한라정보시스템 • 한라펄프제지 • 한라일렉트로닉스 • 한라환경산업 • 배달학원